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Kim You Jeong, a man with dark hair,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The portrait is partially obscured by a dark blue geometric shape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KIM YOU JEONG FORUM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00

김유정문학촌
낭만누리관 세미나실

주최·주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사)김유정기념사업회



KIM YOU JEONG FORUM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2019년 4월 19일(금)

오후 2:00

김유정문학촌
낭만누리관 세미나실

주최·주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사)김유정기념사업회
후원 강원도, 춘천시, 춘천시문화재단

포럼 일정 || PROGRAM

시 간	구분	내 용	비고
~14:00	등록	▶ 참석자 등록	
14:00~14:10	개회식	▶ 인사말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김금분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 권택삼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4:10~14:50	기조 강연	▶ 문학의 눈으로 읽는 춘천 전상국 (사)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15:00~16:00	주제 발표	▶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유명희 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이미림 강릉원주대 교수	
16:10~17:30	종합 토론	▶ 노성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 노용준 춘천민예총 전회장 ▶ 박정애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 ▶ 최현순 춘천문인협회 회장	좌장 장정룡 강원학연구센터장

인사말

김유정 선생은 짧은 작가 생활을 통해 30여 편의 작품을 남길 만큼 문학적 열정이 넘달랐습니다. 특히 고향 실례마을을 배경으로 한 「봄봄」, 「동백꽃」 등은 그의 작가적 특징이 잘 드러난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정 선생은 생동감 있는 강원도 방언으로 고향마을의 풍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순박하고 진솔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곳 실례마을은 김유정 문학의 주요 중심지로 김유정 작품이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마을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문학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생활하고 놀았던 소설 속 공간들은 '실례 이야기길'로 재탄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김유정문학촌과 실례마을은 춘천사람들, 강원도 사람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김유정과 호흡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공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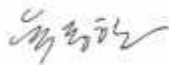
오늘 개최되는 김유정 포럼은 춘천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유정 선생의 문학을 지역학의 측면에서 재조명해봄으로써 김유정 문학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김유정 문학은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1930년대 강원도 지역의 사회, 문화, 언어, 민요 등 당시의 풍습과 생활상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지역학 연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역학은 단순히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의 이 학술행사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의 대표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강원도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강원도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발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금분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오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전상국 (사)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따뜻한 봄날 김유정 포럼에 함께 하기 위해 찾아주신 많은 강원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9년 4월

강원연구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실례마을 노란 동백꽃이 한창인 이 때에 맞춰 <김유정문학과 지역학>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6일 날 (사)김유정기념사업회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는 MOU를 맺었습니다.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연구 수행, 정보공유 등의 학술·연구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에 그 협력분야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930년대 김유정 작가의 작품 배경인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고 당대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강원학 또는 춘천학이라는 명제에 맞춰 김유정문학은 또 다른 갈래로서의 위상을 가지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공동주최 해주신 육동한 강원연구원장님과 장정룡 강원학연구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더욱 발전되어가도록 함께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문학의 눈으로 읽는 춘천>을 기조강연해주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신 전상국 (사) 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정문학촌을 전국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아주시고 춘천의 문학관광 인프라를 갖춰주시느라 오랫동안 열정을 다해주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옥고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춘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김유정문학은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유명희 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님의 <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이미림 강릉원주대 교수님의 <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논문은 참으로 귀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문학의 연구에서 지역학의 연구로 통섭할 수 있는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토론해주실 네 분 토론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노성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님, 노용춘 춘천민예총 전회장님, 박정에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님, 최현순 춘천문인협회 회장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김유정 문학촌과 춘천이라는 지역, 춘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심포지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폭제로 <김유정문학과 지역학>이 김유정 문학의 주인인 지역 문인들과 시민들, 학생들, 우리 모두의 의제로 나아갈 것을 꿈꾸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꽃 피는 봄날처럼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사) 김유정기념사업회장 김 금 분

목 차 || CONTENTS

- ◇ 인사말 /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김금분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 ◆ 기조강연 11
문학의 눈으로 읽는 춘천
/ 전상국 _ (사)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 ◆ 제1발표 25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 유명희 _ 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 ◆ 제2발표 47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 이미림 _ 강릉원주대 교수

- ◇ 토론문 71
노성호 _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노용춘 _ 춘천민예총 전회장
박정애 _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
최현순 _ 춘천문인협회 회장



KIM YOU JEONG FORUM

문학의 눈으로 읽는
춘천

전 상 국
(사)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문학의 눈으로 읽는 춘천

전 상 국

(사)김유정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

※ 강원도의 얼 선양사업 인물

- 동안거사 이승휴(1224~1300)
- 윤곡 원천석(1330~)
- 매월당 김시습(1434~1493)
- 신사임당(1504~1551)
- 난설헌 허초희(1563~1589)
- 교산 허균(1569~1618)
- 미수 허목(1595~1682)
- 약촌 남구만(1629~1711)
- 난고 김병연(1807~1863)
- 의암 유인석(1842~1915)
- 윤희순(1860~1935)
- 한서 남궁억(1863~1939)
- 만해 한용운(1897~1944)
- 초허 김동명(1901~1968)
- 가산 이효석(1907~1942)
- 김유정(1908~1937)
- 박수근(1914~1965)
- 박인환(1926~1956)

- 선양사업 추가 희망 인물

- 울곡 이이(1536~1584)
- 우사 김규식(1881~1950)
- 형오 차상찬(1987~1946)
- 상허 이태준(1904~1953)
- 권진규(1922~1974)
- 박경리(1926~2008)

☆ 춘천의 비전 표어

-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 춘천
- 낭만의 청춘 도시
- 항상 봄날, 누구나 청춘, 호반의 도시 춘천
- 춘천, 고향의 원형, 뮤즈의 낙원

☆ 춘천-하면 떠오르는 말

- 막국수와 닭갈비
- 소양댐, 청평사, 북한강, 삼악산, 구곡폭포
- 남이섬, 중도, 강촌, 안개, 경춘선, 삼악산
- 김유정, 마임축제, 인형극
- 소양강 처녀
- 무뚝뚝하다, 인심 좋다

☆ 김유정의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 리 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달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굽적굽직한 산들이 뻗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울퉁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실레라 부른다. 집이라야 대개 쓰러질 듯한 헌 초가요 그나마도 오십 호밖에 못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조광 1936.5)

☆ 김유정의 소설 <안해> 속에 그려진 춘천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천아 봉의산아, 잘 있거라,
신연강 배 타면 하직이라,



유안진 시인의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4행 생략...

춘川이 그렇지
까닭도 연고도 없이 가고 싶지
얼음 풀리는 냇가에 새파란 옹미나리 발돋움할 거라
늑다만 눈 응달 밟치에 두고
따른 역새 깨 벗은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피고 있는 진달래꽃 닮은 누가 있을 거라
왜 느닷없이 불쑥불쑥 춘천에 가고 싶어지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가서, 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라
그저, 다만, 새봄 한아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용동현 안개 퍼듯 언제나 춘천 춘천이면서도
정말, 가 본적이 없지
엄두가 안 나지, 두렵지, 겁나기도 하지
봄은 산 너머 남촌 야닌 춘천에서 오지
여름날 산마루의 소낙비는 이슬비로 음 뱉우고
단풍은 산허리에 아지랑거리는 봄의 실루엣
쌓이는 낙엽 밑에는 봄나물 꽃다지 노랑웃음도 쌓이지
단풍도 꽃이 되지
춘천이니까.

☆ 춘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1

- 이인직 : 귀의 성(송암리, 술개마을)
- 이해조 : 소양정기(소양강)

- 김유정 : 산골나그네(신동면 증리 덕돌네 주막터, 한들 물레방아)
 총각과 맹꽁이(증리 아랫말)
 소낙비(실례마을 춘호네 집, 한들)
 금따는 콩밭(실례마을 영식이네 콩밭)
 떡(실례마을 도삿덕 안마당)
 만무방(수아리골, 응고개, 증4리 노름터 동굴)
 숫(수아리골)
 봄·봄(실례마을 봉필 영감집)
 동백꽃(실례마을)
 안해(실례마을)
 산골(수아리골)
 가을(실례마을)

☆ 김유정 이후 춘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2

- 박종화 : 자고가는 저 구름아
- 오영수 : 어린 상록수(사우동 공병부대)
- 구혜영 : 광상곡(봉의동, 세종호텔, 봉의산)
 고래의 노래
 불타는 신록
- 정을병 : 오목놀이
 인동덩굴

☆ 김유정 이후 춘천으로 배경으로 한 소설 3

- 전상국 : 동행(근화동)
아베의 가족(신북면 인람리 일대)
지빠귀 둥지 속의 빠꾸기(추곡, 대동리 일대)
음지의 눈(위도)
소양강 처녀(추곡리)
유정의 사랑(실례 금병산 일대)
플라나리아(연엽산, 팔호광장)
물매화 사랑(덕만이 고개 너머 광판리)
은 생애의 한 순간(춘천분지 산 일대)
실종(춘천 퇴계동 일대)
너브내 아라리(동산면)
피꼬리 편지(강촌)
남이섬(남이섬)

☆ 김유정 이후 춘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 4

- 오정희 : 옛우물(후평1동 세경아파트 뒤편 연당집)
비어있는 들(중도 낚시터)
파로호(파로호)
야회(후평동)
- 조정래 : 누명(춘천 미군부대)
- 안정효 : 은마는 오지 않는다(금사리, 중도)
세월의 뒷모습(금사리, 중도)
- 한수산 : 안개시정거리(소양로, 근화동)
대설부
난중일기
- 조성기 : 라하트 하헤렙(사우동 성문교회, 잠사공장터, 뽕밭)

☆ 김유정 이후 춘천으로 배경으로 한 소설 5

- 이외수 : 훈장(소양댐, 풍암초등학교 품결분교장
겨울나기(도립의료원, 춘천역)
장수하늘소(소양로 집창촌) 시립문화관 추곡약수처 본전다방
황금비늘(춘천호—의암호, 소양호)
외뿔(의암호)
장외인간(봉의산 구봉산 일대)
- 양순석 : 오위류(춘천여고, 성심여대)
허공에 걸린 길(남춘천역 효자목욕탕)
- 서종택 : 외출(소양강, 등선폭포, 중앙로 일대)
- 하창수 : 숨막힘
마
- 홍성암 : 어떤 귀향

☆ 김유정 이후 춘천으로 배경으로 한 소설 6

- 최수철 : 고래뱃속에서
머릿속의 뿔 (소양₁교)
- 박상우 : 짐시의 시간(공지천)
- 윤대녕 : 소는 여관으로 들어간(샘밭, 소양강, 청평사)
코카콜라 애인(샘밭)
- 정 찬 : 죽음의 질문
- 신경숙 : 외딴방(춘천역 부근 약국)
- 공선옥 : 그들의 웃음소리
- 배수아 : 나의 첫 개
- 김도연 : 춘천가는 배(삼악산, 소양정, 봉의산)
- 박민규 :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 춘천을 배경으로 한 수필

- 피천득: 인연
-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 이석훈: 소양강 신연강
- 이승녕: 너절하게 죽는구나
- 차상찬: 나의 고장 춘천 자랑

☆ 춘천을 소재로 한 시조

- 이은상: 소양강물따라
- 유치환: 소양강
- 신석정: 추석, 소양강 삼장, 속 소양강 단장
- 박영희: 신가 연작
- 정지용: 유선애상
- 이석훈: 춘천풍물기 연작
- 천상병: 잠모습 아내

★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30년대 일제강점기 춘천 사람들의 삶

만무방, 들병이, 점순이, 화전민, 노름꾼,
소장수, 위장결혼, 나무장사, 데릴사위,

시루팔떡, 시루떡, 백설기, 주악, 이밥,
봄감자, 노란동백꽃, 잔치국수,
수아리골,

한들, 백두고개, 응고개, 떨잎, 가을거지,
낮짱, 계약서 쓰고 아내 팔아먹기

김유정의 동백꽃은 동백꽃이 아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생강나무꽃)과 산수유



김유정(1908-1937)

1908년 1월 11일(음), 청동 김씨의 아버지 김춘식, 어머니 청송 심씨의 2남 6녀 중 일곱째로 춘천시 신동면 증리(실례마을)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이던 1914년 가족이 모두 서울 종로구 운니동(진골)으로 이사했다.

일곱 살에 어머니를, 이흔 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1920년 재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 1923년 졸업했다.

휘문고보를 검정(檢定)으로 입학했고, 안회남과 같은 반이 돼 친하게 지냈다. 1929년 휘문고보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박복주(1904-1979)에게 끊임없이 구애의 편지를 보냈지만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졸석일수가 적어 학교에서 제적되자 1930년 실례마을로 내려와 조명희, 조카 김영수와 함께 야학을 하고, 농우회를 조직하는 등 농촌 계몽운동에 힘을 쏟았다.

1933년 상경하여 안회남의 주선으로 『재선』에 「산골 나그네」를 발표했다.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낙비」 당선, 조선중앙일보에 「노단지」가 가작 입선되어 정식으로 등단한 이후 폐결핵, 치질과 싸우면서 「금 딱는 콩밭」, 「봄 봄」, 「안해」 등을 발표했다.

1936년엔 박용철의 누이동생 박봉자를 짝사랑하여 31통의 편지(열서)를 썼지만 회신은 받지 못했다.

사랑의 좌절, 극심한 병마 속에서도 「동백꽃」, 「가을」, 「정조(貞操)」 등 1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1937년 3월 29일 안회남 앞으로 보낸 편지 「필승 전(必承前)」(3.18)을 끝으로 약화된 폐결핵, 치질을 고치지 못한 채 경기도 광주에 있는 누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1938년 단편집 「동백꽃」이 삼문사에서 발간되었다.

김유정 소설

「산골 나그네」 「총각과 맹꽁이」 「소낙비」
「노다지」 「금 따는 콩밭」 「금」 「떡」
「만무방」 「산골」 「숫」 「봄·봄」 「안해」
「심청」 「봄과따라지」 「가을」 「두꺼비」
「봄밤」 「이런 음악회」 「동백꽃」
「야앵」 「옥토끼」 「생의 반려」 「정조」
「슬픈 이야기」 「따라지」 「땡별」
「연기」 「정분」 「두포전」 「형」 「애기」







KIM YOU JEONG FORUM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유 명 희

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 김유정문학촌의 성과와 전망

유 명 희

춘천학연구소 학예연구사

1. 글을 시작하며
2. 지역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3. 지역학으로서의 김유정, 춘천과 김유정
4. 김유정문학촌 현황
5. 김유정문학촌에 대한 연구 검토
6. 김유정문학촌의 성과
7.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1. 글을 시작하며

왜 김유정이고 왜 지역학인가. 답은 간단하다. 김유정과 춘천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정은 춘천에 있는 마을 하나 전체를 소설 속에 등장시켜 그만의 창작 무대를 만들었다. 그 마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 문학촌이 들어섰다. 다른 곳은 문학관이거나 문학가의 집이거나 문인의 집 등으로 기념관이 들어섰다. 김유정문학촌은 문학촌이다. 마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유정문학촌이 들어선 공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 지역의 지역학, 지역문화를 이야기할 때 김유정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요즘은 문학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작가에 대한 기억과 기록만으로 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문화감수성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전역에 문학관, 미술관, 박물관 등이 들어서고 우리 국민들의 1인당 GDP도 작년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축제장이나 문화행사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콘텐츠는 항상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문화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피고, 김유정과 춘천 지역의 관계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자연스럽게 김유정문학촌의 현황과 내용에 관심이 갔다. 김유정에 관한 연구는 많다. 이 글은 김유정이 아니라 김유정문학촌의 행보를 더듬고, 문학촌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분석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하여 김유정문학촌이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2. 지역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지역학이 대두된 것은 90년대 초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관계가 있다. 이에 9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세계화정책과 맞물려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한껏 고조되었다. 지역문화, 지역학의 붐이 시작된 것이다. 지역학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연구자나 연구기관마다 일정 정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란 범위도 상대적이어서 아시아, 유럽과 같은 대륙에서부터 강원도, 경기도 등의 도 단위의 지역과 춘천시, 원주시와 같은 범위의 지역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영어 표기가 달리 표시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학에 대한 급작스럽고도 과도한 관심은 지역연구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양적인 측면에서만 부각되어 왔다. 내용도 천편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판기 상품에 비유될 정도로 과도하게 진행되었다.¹⁾ 즉 연구자들의 내재적 필요에 의해 제기되고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외부에서 위로부터 추진된 지역연구는 학문의 장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²⁾이다.

위의 지적은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로 현재는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지역학이나 지역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동안 지역학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지역에 만들어진 지역학 연구소들 역시 제 방향을 찾아 유지된 곳은 많지 않다.

지역학에 대한 합의와 정의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지역학이란 학문 자체가 다양한 학문의 집합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인문학을

1) 서울학, 충북학, 강원학, 제주학, 전북학, 부산학, 원주학 등을 표방한 지역학 연구소가 대학 부설연구소 또는 지자체 부설 연구원 등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박진한 남상욱 이호상, 「인천학의 현황과 지역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정신 인문학연구』1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35쪽.

2) 석철진, 「지역연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태연구』8,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1, 133쪽.

중심으로 학문의 영역을 넓힌 곳도 있고 사회학을 중심으로, 혹은 이공계를 중심으로 지역학의 저변을 확장시킨 곳 등 다양하다. 그렇다고 이 다양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융복합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해야만 한다. 융복합적인 학문의 장으로 뿌리내린다고 해도 탁상행정으로 그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역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학문이라 해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의 비주얼 맵핑(visual mapping)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입체-공간적 지식을 제공하며, 문화인류학은 삶의 양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이 될 수 있고, 언어학은 지역연구의 수단이자 연구대상으로 자리매김되며, 사회과학은 연구의 맥락을 제공하면서 통합적 의미를 구현한다. 때문에 그 어떤 한 가지 학문영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없으며, 다(多)학문적 접근(multidisciplinary)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³⁾

즉, 응용과학(applied science)은 진리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용상의 목적을 미리 설정하며, 다양한 경험적 성과들을 재정리해 이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체계화⁴⁾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역학에 대한 논의 대부분의 결론은 한결같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그치고 만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3. 지역학으로서의 김유정, 춘천과 김유정

지역학이 지역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들의 융복합적 장이라면 여기에 지역학의 중심적인 분야는 문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역사, 지리, 건축, 문학, 예술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지역문화를 알고 지역문화를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학의 궁극적 목표일 수 있다. 지역학이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전반의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문화적 자긍심과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여

3) 석철진, 위의 논문, 138쪽.

4) 또한 인문 사회과학에서 지역연구의 역할은 마치 자연과학에서 공학(engineering)이 하는 것과 같다. Kenneth Prewitt 석철진, 위의 논문, 136쪽.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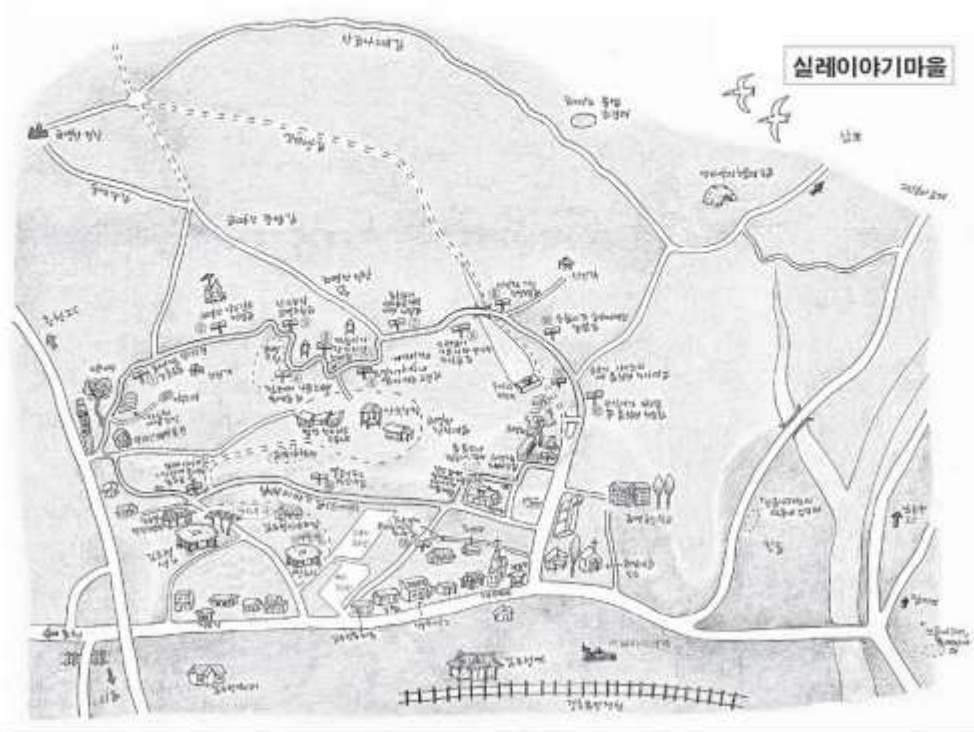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것이 본래의 지역학의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민의 정체성 등을 찾아가려 노력해야 하고 이것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역문화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은 많다. 그 지역의 자연, 인문, 지리적 환경이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문화적 요소들 역사, 인물, 문학, 예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춘천을 대표하는 인물은 지역을 대표하면서 춘천 시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춘천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승겸, 한백록, 류인석, 윤희순, 차상찬, 김유정 등이 꼽을 수 있다.

이 중 김유정은 춘천이 낳은 세계적 소설가이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소설가는 세계에서도 하나밖에 없다. 김유정은 여타의 소설가들보다 더 지역과 밀착된 인물이다. 당대의 어느 소설가보다 향토색이 짙은 작품들을 썼으며 이 작품들의 배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춘천이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 김유정과 춘천 지역의 밀착은 김유정의 작품과 그의 수필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춘천에 머물며 작품을 쓴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 사이 그는 춘천의 기층문화에 섞여 살았다. 이것은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민요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당시 유행하던 아라리가 작품 곳곳에 적절히 녹아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⁵⁾

김유정만큼 자신의 지역이 소설 속 배경으로 고스란히 자리잡은 작가가 있을까. 실례 마을은 그 자체로 김유정 소설의 무대이다. 또한 소설가의 이름으로 역명, 우체국명 등을 바꾼 마을은 또 얼마나 있을까. 춘천의 지역문화와 지역학을 이야기하기 좋은 인물이 바로 김유정이다. 춘천에서 직접 작품 활동을 한 기간은 길지 않으나 춘천과 김유정은 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5) 유병희, 「들병이와 아라리」, 『한국의 웃음문화』, 2008.



4. 김유정 문학촌 현황

1) 관람객 수 현황

아래에 제시한 표를 보면 김유정 문학촌은 2002년 개관 이래 입장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 정점을 찍었다.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들어서 7월까지의 여전히 무료 관람이지만 김유정 이야기집 전시관 개관에 맞춰 8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하였다. 이후 입장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에는 유무료 관람객을 모두 합쳐서 123,237명이고, 2018년에는 100,697명으로 집계되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입장객 수가 정체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증가수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 관람의 경우 무료일 때에 비하여 1/5 수준으로 떨어진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⑥

⑥ 춘천의 다른 인물을 기리는 의암유인석유적지의 관람객과 체험학생 수는 국가의 큰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장료가 생기면서 달라진 점은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6·7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문학촌의 일에 생기를 더하게 되었다. 현재 이사장, 사무국장, 음향기술팀장 1명, 총무회계팀장 1명, 기획홍보팀장 1명, 매표 및 검표원 4명, 시설팀 3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전문학예사 선생님은 2016년 7월부터·9월까지 있다가 2017년 4월 공채를 통해 지금 현재 까지 근무 중이라고 한다.

년도	관람인원				
	초·중·고	대학생	일반인	단체	합계
2002년	7,360	5,850	12,435	10,007	35,652
2003년	16,390	10,920	26,006	18,059	71,375
2004년	18,140	7,750	25,270	17,674	68,834
2005년	20,085	7,480	26,900	21,452	75,917
2006년	18,430	7,830	29,510	21,614	77,384
2007년	18,300	8,560	31,740	21,818	80,418
2008년	20,590	9,600	38,450	23,652	92,272
2009년	35,690	17,890	62,730	32,230	148,550
2010년	45,450	23,970	94,880	36,716	200,996
2011년	67,120	39,650	227,670	56,105	390,545
2012년	57,145	39,370	220,215	56,702	373,432
2013년	77,590	52,410	379,940	71,045	580,975
2014년	92,660	78,540	518,030	127,798	824,238
2015년	118,480	76,525	565,360	150,365	910,730
2016년 1-7월	46,730	30,100	201,400	76,900	355,130

월	개인(유료)	단체(유료)	유료입장 소계	무료입장 소계	총 입장객
2016년 8-12월	24,954	14,356	39,214	15,332	54,546

2) 2019년도 김유정문학촌의 사업과 2018년도 사업의 다른 점

2019년도 김유정문학촌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김유정추모제, 김유정문학캠프, 김유정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공모, 김유정문학상, 김유정신인문학상, 김유정백일장, 김유정문학제7), 기획전시, 기타행사, 세계 속에 김유

7) 전국 이야기 시합(나는 이야기꾼이다), 김유정 소설, 어린이들 이야기 겨루기(나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 알리기 프로젝트, 실레마을 이야기잔치, 청소년문학축제 ‘봄·봄’, 소설의 고향을 찾아 가는 문학기행, 순회문학강연 등)

이 프로그램 중에는 2018년도 사업 프로그램에는 없던 것들이 있는데 신설 프로그램)은 “김유정 청소년문학축제 봄·봄”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유정 소설 랩 배틀 및 퀴즈, 김유정 소설 이어쓰기, 청소년문학수상 작품집 출판” 등이 속해 있다.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것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김유정을 알림과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 지역문화에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세대가 이전 세대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지역문학촌이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랩 배틀이나 퀴즈 같은 방식은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이템이다. 또한 청소년문학을 공모하는 방법 역시 김유정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한 후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 중 또 하나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대공연이다. 지난해 초대공연에는 없던 항목인데 “김유정문학제” 중 초대공연으로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을 초청하는 점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공연을 환영하는 것은 이 공연이 강원의 대표성을 띠는 민요이고 동시에 앞서 말한 것처럼 춘천지역에서 그리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불려져 왔던 소리이기 때문이다.

- 확장 프로그램

“주말상설공연”은 2018년에는 세 개달(5,6,9월)에 5개의 공연 레파토리로 진행하였다. 레파토리는 총 5개지만 세 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4월~11월 8개월 동안 매달 다른 레파토리로 진행된다. 공연의 주제와 기간이 모두 확장되어 프

극체스토리텔러초청공연, 김유정학술세미나, 김유정 소설 입제낭송대회, 김유정 소설 <봄·봄>, <동백꽃> 속의 정순이 찾기 대회, 김유정문학상 시상, 김유정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공모 시상, 전통혼례식, 민속놀이(떡메치기, 짝두기 자치기, 굴러라 굴렁쇠, 날아라 고무신, 닭싸움, 다듬이질, 새끼꼬기, 고무줄놀이 등), 풍물장터 등

8)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 <http://www.kimyoujeong.org/Event/Memorial>

9) 김유정문학촌 자료 제공.

그램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기획전시”도 변화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2018년도에 비하여 세 개의 전시에서 분기별 전시로 체계가 달라졌다. 내용 역시 교과서 글을 화가와 협업에 의한 전시, 소설 속 인물 인형전, 소설 캐릭터 및 장면 그리기 입상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일차적 전시를 넘어 복합적인 장르로 나아간 점이 돋보인다.

2018년과 2019년 이 두 년도의 프로그램만을 단순 비교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김유정 문학촌에 대한 연구 검토

2018년 현재 한국문학관협회 소속 문학관 82개관, 미소속 문학관까지 합치면 106개 소, 건립 예정이거나 논의 중인 경우도 다수 있다.¹⁰⁾ 이렇게 많은 문학관 중에 김유정 문학촌이 있다. 김유정 문학촌에 대한 기존 학계의 반응은 다소 우호적인 편이다.

그동안 문학촌에 관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 ① 김종우 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 41권, 2007.
- ②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③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④ 노윤선, 「장소성 기반 인물기념관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 : 문학가 기념관(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⑤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0)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8쪽.

이 다섯가지 논문에서 다른 문학촌과 함께 김유정 문학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를 발췌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난 글은 그것대로, 최근의 것은 그것대로 다 합의하는 바가 있으니 살펴보면 참고할 점이 있다. 처음에 살펴볼 글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종우 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 41권, 2007.

<김유정문학촌>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사를 문학촌 울타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여 춘천 전체의 문화행사로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애니타운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공모전을 통해 김유정 작품의 애니메이션화를 추진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김유정 작품의 마임화, 인형극화, 연극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위 글에서는 운영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면에서 분석하며 제안하고 있다.¹²⁾ 이 중 운영현황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분석을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지역관광거점에 대한 지적은 춘천시가 1995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자치단체'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과 함께 국제마임축제, 국제인형극제, 춘천국제연극제, 소양제, 애니타운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입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화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유정에 대한 애니메이션, 마임, 인형극, 연극 등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으로 보고 있다.

보조교육기관으로의 김유정문학촌에 대해서는 체험과 학습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문학 장르만 대상으로 삼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문화적 조건에 따른 다양한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이나 마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보조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복합문화공간 항목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체험행사를 통해 김유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학촌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았다.

11) 김종우 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41권, 2007, 386쪽.

12) 김종우 윤학로, 위의 논문, 385-390쪽 참조.

연구지원공간으로서의 김유정문학촌은 부족하다고 보았다.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관에 대한 배려에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서 자료 소장을 넘어 공간과 시설을 통해 작가 및 작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¹³⁾ 또한 연구지원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유정에 대한 자료 뿐만 아니라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자료들도 함께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문학예사 확보, 관련연구자들과 작가들의 네트워크화 등도 필요하다고 한다. 나아가 다른 작가나 연구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집필이나 연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학박물관 기능에 대해서는 김유정문학촌 자체가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자료의 부족과 전문가의 부재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의 다섯 가지 지적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현황이었다면 나머지 넷째와 다섯째가 김유정 문학촌의 부족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이 완성된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변화된 점은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여전히 집필과 연구 공간은 없으며 자료에 대한 보완 부분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적인 학예연구사의 영입은 최근에야 이루어져서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든다.¹⁴⁾

재정과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과 운영 수익의 부재를 들고 있다.¹⁵⁾ 그렇지만 이점은 2016년 8월부터 유료입장으로 전환하여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인위 증가와 전문 학예사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13) 다만, 현재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도서정보, 학술정보, 사진자료, 영상자료, 기사자료, 100주년기념행사자료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이 발표된 시점은 2004년도로서 김유정생가와 기념전시관만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현재도 자료를 펼쳐 놓고 볼 만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14) 현재 김유정문학촌의 학예연구사는 2016년 7월부터-9월까지 근무하다 2017년 4월 공채를 통해 지금까지 근무중이다.

15) 김종우 윤학로, 앞의 논문, 385-390쪽.

- ②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지역문화 활성화는 그 지역의 독창적이고 대표적인 문화, 문화유적, 문화유산 등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전승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육시켜 지역문화의 안내자 혹은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¹⁶⁾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실레마을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은 복원된 생가를 중심으로 소설 속 배경이 되는 문학촌 일대를 스토리텔링의 무대로 개발한 김유정 문학의 현장이다. 한국문화관협회에서 지역 문화발전과 모범이 되는 문학관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된 김유정문학촌은 2002년 8월에 개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건립되었고, (사)김유정 기념 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유정 문학촌 자체는 생가, 기념관, 디달방앗간, 외양간, 휴게정, 연못, 우물, 동상 등의 시설로 이루어졌지만, 넓게는 생가나, 기념전시관, 금병의숙, 금병산 등산로, 김유정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을 전체를 일컫는다.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춘천시 신동면에 가면 철도 역사상 최초로 역명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김유정 역과 '유정식당', '봄-막걸리' 등 김유정소설과 관련있는 상점 간판을 볼 수 있고, 실레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금병산은 김유정의 작품명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면서 작가의 작품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준다.¹⁷⁾

- ③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정명숙은 국내 문인을 활용한 문학관 개발 유형을 문인 및 작품 관련 문화콘텐츠로 나눠 출생지 활용형, 거주지 활용형, 작품 활용형 등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¹⁸⁾ 출생지 활용형은 우리나라 문학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지역문화콘텐츠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충북 옥천의 정지용 문학관이 대표적이다. 거주지 활용형은

16)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화관 활성화 정책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쪽.

17) 김진숙, 위의 논문, 32-3쪽 참조.

18)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8쪽.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작가가 거주한 공간에 문학관이 건립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박경리 토지 문학관이 원주에 세워진 경우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작품 활용형은 출생지, 거주지와 별개로 작품 자체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한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이효석 문학관과 황순원 문학관을 꼽는데 두 문학관 모두 작품의 배경 무대를 문학관에 잘 구현해 놓았다.

김유정 문학촌을 위 유형에 대입하자면 출생지 활용형, 거주지 활용형, 문학 콘텐츠 개발형 이 세 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김유정 문학촌은 입지가 탄탄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문학관은 많지 않다.

정명숙은 위의 같이 문학관 개발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운영 형태에 따라 박물관 교육형, 지역문화 활성화형, 지역문화 공간형, 문학인 양성형, 작품 배경형, 축제 관광형 등 6가지로 다시 분류하였다.¹⁹⁾ 이 여섯 가지 분류에서 김유정 문학촌은 이효석 문학관과 함께 마지막 6번째인 축제 관광형으로 분류된다.

김유정 문학촌을 축제 관광형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유정문학촌은 김유정기념사업회가 맡아 해마다 3월 29일 김유정추모제를 시작으로 봄에 김유정문학제를 열고 있다. 김유정문학제에서는 김유정 소설 속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축제를 찾은 탐방객들에게 마을 잔치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떡메를 치고, 달을 직접 날려보고, 소설 속 주인공 '점순이' 닮은 사람을 찾는 행사를 통해 소박한 1930년대의 풍경을 재현한다.²⁰⁾

동시에 김유정 열차기행과 봄봄 문학캠프, 전국이야기대회 등을 들면서 축제와 연계된 문학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의 세 분류에서도 김유정 문학촌은 세 가지의 기능을 고루 갖춘 문학관이었듯 이번의 6가지 분류에도 한 가지 분류 안에만 머물기에는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양하다. 첫 번째인 박물관 교육형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부분인 지역문화 활성화형, 지역문화 공간형, 문학인 양성형, 작품 배경형 등에

19) 정명숙, 위의 논문, 8-37쪽. 첫째, 박물관 교육형으로는 동리목월문학관과 이육사문학관을, 지역문화 활성화형으로는 정지용문학관과 최명희문학관을, 지역문화 공간형으로는 박경리문학공원과 윤동주 문학관, 문학인 양성형으로는 백담사 만해마을과 토지문화관을, 작품 배경형으로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과 혼불문학관을, 마지막 축제관광형으로는 이효석 문학관과 김유정문학촌을 들고 있다. 각각의 분류에 문학관을 예로 들면서 한계와 가능성을 들고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20) 정명숙, 위의 논문, 35쪽. 2018년도부터는 3월 29일에는 추모제만 진행하고 가을에 실시하던 '실례마을 이야기잔치'와 합쳐 축제를 열고 있다.

는 김유정 문학촌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화 활성화는 좁게는 지역 사회의 지역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김유정 문학촌은 이미 그러하고 있다고 본다. 지역문화 공간형은 이미 다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김유정 문학촌과 이 일대 실례마을이 모두 김유정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등산로 등을 정비하여 이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학인 양성형 역시 문학상과 백일장 등을 통하여 문학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명숙은 “지역의 문학관별 연계 사업은 물론 전국의 문학관을 하나로 잇는 범문학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²¹⁾면서 사라진 문인을 현재로 불러오는 ‘이야기’, ‘대중과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문인, 문학관, 문화기획자와의 만남’ 등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것은 이야기 대회에서처럼 이야기가 갖는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대중과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학제에서의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진다. 기획자 등의 전문가 프로그램 역시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가지는데 대부분 1회 방문으로 그친다. 이에 전상국 前김유정문학촌장의 다음과 같은 말은 새겨 볼 만하다. 혹은 김유정 문학촌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드러내준다.

“한 작가의 생애와 작품의 창작 비밀 및 작품 세계가 실감나게 풀리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맞추고 있다. 즉 문학관이 단순히 자료나 보관하고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인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작가 김유정 소설의 재미와 문학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춘천 실례마을은 1930년대 빼어난 이야기꾼 김유정의 고향 마을이면서 작품 12편의 무대가 된, 이야기가 살아 있는 이야기 마을이라는 것을 생가 및 전시관과 실레이야기길을 돌아보는 과정에 스스로 알게 한다. 앞으로 야학 등 농촌계몽 운동을 펼친 금병의숙이나 봄봄 등 작품의 무대가 되었던 곳을 복원하거나 정비함으로써 이야기 마을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²³⁾

21) 정명숙, 위의 논문, 44쪽.

22) 정명숙, 위의 논문, 46-48쪽.

23) 정명숙, 위의 논문, 48-49쪽.

- ④ 노윤선, 「장소성 기반 인물기념관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 : 문학가 기념관(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노윤선은 김유정문학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른 문학관과 달리 비교적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유적지 명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되어 있어 향후 타문학관 운영방안의 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사람 이름을 단 경춘선 ‘김유정역’이 2004년 개통됨으로써 지역성을 명확히 하였고, 김유정농협, 김유정로, 김유정우체국 등의 기관명이나 상호를 작가의 이름으로 개명함으로써 작가 문학관의 입지성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⁴⁾

또한 ‘실레마을이야기’라는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김유정을 기념하고 김유정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²⁵⁾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장소 제공에 대한 계획을 전상국 전총장님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 코스는 다음과 같다. “김유정문학촌→삼악산(이인적『혈의 누』)→신승점장군 묘역→애니메이션박물관→서면 금산(안정효『은마는 오지 않는다』)→인형극장→산림박물관→마임 공연장”²⁶⁾으로 연결되어 김유정 문학촌 뿐만이 아니라 춘천시 전역의 문화공간을 아우르는 코스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이어서 이 글에서는 김유정 문학촌에 대한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 김유정 문학촌은 관련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자에 대한 비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물기념관으로써의 문학관은 단순한 자료 소장용을 넘어 그 공간과 시설을 통하여 작가 및 작품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과 자료 확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연구지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한계로 다가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점은 지역성과 기념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인물문학관으로써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에 전달될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²⁷⁾

24) 노윤선, 「장소성 기반 인물기념관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 : 문학가기념관(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4쪽.
25) 노윤선, 위의 논문, 2014, 104쪽 참조.
26) 전상국, 「문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문학관협회, 2005. 노윤선, 위의 논문, 2014, 107쪽에서 재인용.
27) 노윤선, 위의 논문, 2014, 105쪽.

정리하자면, 단순 소장 자료에 그치면서 연구지원공간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⑤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을 살펴보자.



〈그림1〉 문학관 문학콘텐츠의 대상²⁸⁾

문화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이 있으며 이것은 문학관의 콘텐츠이면서 동시에 지역문화의 핵심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면 문학관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문학관과 지역문화가 공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홍미희는 문학관의 문학콘텐츠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문학콘텐츠 분류, 문학전시콘텐츠, 문학행사콘텐츠, 문학교육콘텐츠, 문학체험콘텐츠, 문학관광콘텐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김유정문학촌은 문학관광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다²⁹⁾고 하였다.

28) 홍미희, 앞의 논문, 2019, 5쪽.

29) 홍미희, 위의 논문, 54쪽.

이와 동시에 이 다섯 가지 분류 중 문학관광콘텐츠로 분류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작가 김유정의 고향이면서 단편소설 *봄·봄*, *동백꽃* 등 작품의 배경지인 춘천시 신동면 실례마을에 2002년 조성되었다. 작가의 소설 대부분을 이 곳에서 구상하고 등장인물이나 지명도 일치하여 작가의 고향 마을인 실례마을을 이야기마을로 특화하여 대표적인 문학테마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생가, 연못, 뒷간, 외양간, 디딜방앗간 등을 조성하여 작가가 살았던 배경인 1930년대 농촌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였다. 김유정 문학촌 뒷산에 금병산과 실례 이야기길을 만들어 실제 소설에 나왔던 배경을 ‘열여섯마당’이라는 이야기코스 소개해 등산객들과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김유정 이야기 집, 체험관,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해 문학마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딴 경춘선 ‘김유정역’이 2004년 개통됨으로써 지역성을 확실히 하였고 주변의 기관명이나 상호, 도로명 등이 ‘김유정농협’, ‘김유정우체국’, ‘김유정로’ 등 작가의 이름을 포함시켜 개명하여 특화하였다. 지금은 폐쇄된 경춘로 폐선로를 새롭길 재탄생시킨 김유정 역에서 시작하는 레일바이크를 타고 춘천을 여행할 수도 있어 김유정문학촌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이용되고 있다.³⁰⁾

문학관의 기능은 점차 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학관은 단순히 작가에 대한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창작관 등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이다.³¹⁾

6. 김유정문학촌의 성과 - OSMU

- 오페라

봄봄 오페라 2011. 6. 26.

소설가 김유정이 1935년 발표한 동명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건용 교수가 작곡 및 대본을 작성한 창작오페라 <봄봄>은 우리말로 된 단막오페라이며, 2001년 초연 이후 도쿄의 신국립극장에서 공연되어 호평 받은 바 있다.³²⁾

30) 홍미희, 위의 논문, 75-76쪽.

31)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합성어.

(이명호, 오삼균, 도순기, 「라키비움(Larchiveum) 관점에서 본 국내 문학관의 운영실태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집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5.) 홍미희, 위의 논문 175쪽에서 재인용.

- 애니메이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특별! 의병대장 류인석과 함께 조선을 지켜라! (사)의암학회 의암유인석 장군의 생애를 만화책으로 엮으면서 현대의 어린 아이가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의암의 생애를 함께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간 순으로 단순 나열한 것보다 흥미를 끈다.

애니메이션 김유정 작품 4편, 김유정 인물 1편이다.

춘천시가 작가 김유정(1908~1937년)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 춘천시는 최근 문을 연 신동면 증리 김유정문학마을 콘텐츠 확충을 위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비 3억 원 등 3억7천만 원을 들여 '봄봄'과 '동백꽃' 등 김유정의 작품을 10분짜리 애니메이션 3편으로 제작한다. 특히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 2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예정이다. 춘천시는 다음 달 제작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김유정문학마을 내 영상관에서 상영될 예정이다.³³⁾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 김유정(1908~1937)의 소설이 벽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된다. 춘천시와 문화관광상품시장사업단은 7000만 원을 투입해 경춘선 상품시장 구간 교각에 김유정 벽화거리를 조성한다. 500m 구간 14개 교각에는 소설 동백꽃의 주요 장면을 소재로 한 벽화가 그려진다. 신동면 증리 김유정문학촌에서는 소설 봄봄, 동백꽃과 김유정의 삶을 내용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3억 70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13분 분량 3편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애니메이션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제공한다.³⁴⁾

다른 인물들에 대한 콘텐츠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도 김유정의 입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다른 예일 수 있으나 시 한 편이 다양한 장르로 변주되는 경우를 말하고자 한다. 푸슈킨의 시 <집사>의 주인공은 신경질적이고 질투심 많은 청년 알레코이다. 이 시를 바탕으로 라흐마니노프가 만든 오페라가 <알레코>, 그리고 시와 오페라를 바탕으로 안부가 레오니드 마신이 뉴욕 시어터 발레단을 위해 만든 발레의 제목도

32) 「우리말로 부르는 우리 이야기, 한국 창작오페라 '봄봄」, 『위클리서울』, 2019. 3. 27. (<http://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51017>) 올해 6월에 하는 공연 홍보 기사.

33) 어린이 강원일보, 2016. 9. 1. (<http://www.kidkangwon.co.kr/HTML/View.asp?Pnum=11872>)

34) 강원도민일보, 2017. 8. 16.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68756>)

<알레코>이다. 지금은 샤갈이 마신의 발레 맞춰 그린 배경그림의 제목으로 가장 유명하다. 알레코라는 이름 하나에 문학, 음악, 발레, 미술 등 여러 예술에 걸쳐 러시아 천재 예술가들의 이름이 연달아 이어진다.³⁵⁾

이렇게 한 편의 시로 OSMU의 좋은 예가 있다. 우리는 김유정이 있고 그의 소설이 있고 그 공간이 춘천에 있으니 이보다 더 멋진 OSMU를 기대한다.

7.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위 글을 정리하면 김유정 문학촌의 과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김유정 문학촌의 역할이다. 발표자는 2014년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지역특화교육과정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도 자기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산업이나 문화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때 각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고증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긍지를 가지고 지역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느낄 만한 주제, 콘텐츠를 찾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지금의 지역학 목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이나 경제가 발전하여도 살기 좋아진다. 그럼에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을 지역학에서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유형의 기념관이 아니라 무형의 정서적 유산이 더 가치가 크다.

그렇다고 하드웨어를 등한시할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유형의 자산을 대폭 활용하여야 한다. 차세대의 그들이 찾아오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 라비키움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아카이브(archive)와 DB 구축이라는 단어로만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김유정 문학촌의 자랑인 공간에 대한 더 깊은 천착과 연구가 필요하다.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미래 사회의 새로운 기술인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도 제안하고 싶다. 이미 있는 실례마을 지도에 생생한 현장을 만들어 넣자는 것이다. 마을 전체가 아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놀이터가 되고 도서관이 되고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35) 진용주, 『기억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추, 2019.

마지막으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멀리 돌아가더라도 ‘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걸 하게 만드는 힘은 공익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 사회에 필요할 거다, 앞으로 필요할 거다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보기에 지금 프로그램의 기획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근본적인 정신이나 공익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강준혁 문화기획자- 23) 김소연 편집장, 그가 시작하면 ‘흐름’이 되었다, 예술경영웹진 창간 2주년 특별기획 <한국현대예술경영의 흐름>.

공익성에 대한 문제는 관광산업적인 측면에 매몰되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익을 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학관 활성화 정책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김종우 윤학로, 「김유정문학촌과 이효석문학관의 운영현황과 전망」, 『비교문학』41권, 2007. 노윤선, 「장소성 기반 인물기념관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 : 문학가기념관(문학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서진선, 「문학관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김유정 문학촌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서현정, 「한국문학 학습을 위한 문학공간 현장학습 방안」,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석철진, 「지역연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태연구』8,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1.
- 유명희, 「들병이와 아라리」, 『한국의 웃음문화』, 2008.
- 유인순, 「金裕貞의 小說空間」,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정병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홍미희, 「문학콘텐츠를 활용한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KIM YOU JEONG FORUM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이 미 립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이 미 립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론
2. 고향의식과 궁핍/유랑으로서의 30년대 삶
3. 농군과 들병이로 본 강원도민
4. 민요/민속에 나타난 전근대와 근대의 혼효
5. 토착어/구어/감(참)각어로서의 로컬리티 언어
6. 결론

1. 서론

강원문학은 주변부문학 혹은 가장자리문학으로 여겨져 지역적 타자성만큼이나 배제되거나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한국문학사 및 한국현대소설사에서 강원 영서 출신 작가인 김유정(춘천), 이효석(봉평), 이태준(철원)이 차지하는 문학적 가치와 문학사적 위치는 매우 크고 높다. 김유정학회, 상허학회, 이효석문학제 등에서 매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채로운 문화축제, 학술대회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세 작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최근 세계화와 더불어 로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문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험공간으로서의 로컬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터이며 그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맺어지고 다양성이 발현하는 프로세스의 공간이며 사회·정치·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공간¹⁾이다. 로컬리티²⁾와 로컬문화는 중심부의 지배논리를 거부하고

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26쪽.
2) 과거에는 지방으로 표현했으나 이는 일정한/어느 방면의 땅이란 뜻도 있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가리키거나 중앙에 대비된 하부 단위/조직이라는 중앙과 변방,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이분법적 사유를 지너 최근에는 지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어 다원성, 소수성, 타자성 등의 포스트 모던적 가치와 연결되는 로컬리티를 선택하는 편이다.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민족문화의 이념적 억압과 논리를 비판적으로 반성)한다는 점에서 타자지향적인 저항성을 지닌다. 장소, 자리, 위치를 포함하는 로컬리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나 기억에 근거한 공통인식,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 등의 인문적 요소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나 생활방식의 반영으로서의 제도⁴⁾ 하에 구성된다. 서울과 지방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지역’ 개념으로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민족문화로서 보편성을 가져야 세계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독창성을 확보⁵⁾할 수 있다.

지역대학 교수 및 연구자들에 의한 로컬리티 연구가 축적되었고, 지역문학사 출간⁶⁾,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설립, 지역대학 교과목인 춘천학(춘천문화의 현재와 미래) 개설 운영⁷⁾, 지역 출신 작가의 발굴과 문학관, 시비 설립 및 생가 복원 작업과 더불어 지역대학 중심의 박사학위논문 배출⁸⁾ 등 로컬리티에 대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 출신 문단으로 구성된 기존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로컬리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물론 지역정체성, 지역문학, 지역작가⁹⁾에 대한 개념 정립도 여전히 합의되지 않아 고구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강원 정체성에 기반한 강원문학이 서북문학, 남도문학, 충청문학, 경상문학, 제주문학 등과 어떤 차별성을 띠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산의 문화적 특징을 개방성, 해양성, 다문화성¹⁰⁾으로 규정짓거나,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는 봉건적 수탈과 저항의 무대, 해방 후는 삼팔선이 빚어낸 분단현실의 허황함과 남다른 이산의 비극, 민주화시기엔 정치적으로 보수적 공간, 90년대 후반은 가족주의 가치를 간직한 ‘고향’의 공간¹¹⁾으로

책, 21쪽, 28쪽, 임재해, 위의 책, 29쪽.

3)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92쪽.

4) 양정애, 「이청준 소설의 남도 로컬리티 연구」, 『비평문학』 제6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132쪽.

5)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29쪽.

6) 『광주문학사』(한림, 1994), 『경남문학사』(불휘, 1995), 『부산문학사』(부산문인협회, 1997), 『속초문학사』, 『강릉문학사』 등이 발간되었다.

7) ‘문화특별시 주축’, (강원도민일보 2019.2.16.)

8) 강릉원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강릉 출신인 심연수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9) 박태일은 해당 지역 출신인가 아닌가 하는 대상 문제에 초점을 두어 살피는 경직된 ‘속지주의’보다는 해당 문인의 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더 넓은 자리에서 그의 중요하고도 뜻있는 문학창작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가를 문제 삼는 개방적인 ‘지연주의’를 주창하며, 해당 지역 태생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어도 상수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63쪽.

10)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171쪽.

보는 통시적 연구와 리리시즘(전통과 서정), 모더니티(이산과 이주), 민족문학(분단, 탄광, 해양)¹²⁾을 이 지역의 문학 정체성으로 보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원 더 나아가 영동/영서 그리고 춘천/원주/강릉을 규정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컬리티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는 1930년대 춘천의 대표작가 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로컬리티를 고찰하고자 한다. 많지 않은 작품¹³⁾에도 불구하고 완결성 높은 소설을 남겼으며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이행기에서 피폐해져가고 부유하며 타락해가는 식민지 농촌현실을 리얼하고 비판적으로 그려낸 김유정 문학을 고향의식, 작중인물유형, 민요와 민속, 언어미학과 문체에 투영된 로컬리티와 문학적 의미를 살펴본다. 매년 발간되는 김유정학회의 연구서¹⁴⁾에 나타나듯이 김유정문학은 1930년대 강원 영서지역의 생활문화의 보고이자 사회사적 자료로도 의미를 지닌다.

2. 고향의식과 궁핍/유랑으로서의 30년대 삶

춘천 실례마을(신남면 중리, 안말)에 대한 작가의 고향인식은 <오월의 산골짜기>에 잘 나타나 있다. 자신의 고향을 ‘한적한 마을’, ‘조고마한 마을’, ‘안옥한 마을’, ‘빈약한 촌락’, ‘흙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 ‘벽촌’으로 그린 작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나의 故郷은 저 江原道 산골이다. 春川邑에서 한 二十里假量 山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조고마한 마을이다. 앞뒤 左右에 굴썩굴썩한 山들이 뺨 둘러섯고 그속계 문친 안옥한 마을이다. 그山에 문친 模樣이 마치 옴푼한 떡시루같다하여 洞名을 실례라

11) 양문규, 「한국근대문학에 나타난 강원도: 강릉,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44권, 민족문학사학회, 2010, 52쪽.

12) 남기택, 「강원 영동지역의 문학적 정체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5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05쪽.

13) 전신재의 『원본 김유정전집 개정증보판』(강, 2012)에 의하면, 소설 32편, 수필 12편, 설문응답 1편, 서간 5편, 번역동화 및 번역소설 2편으로 작품일람을 정리했으며, 유인순은 <솔>과 <정분>을 퇴고와 초고본으로 묶어 동일작품으로 보아 소설 31편, 편지 일기를 포함한 수필 18편으로 한정하고 있다.

14) 김유정문학촌, 김유정학회 및 유인순 교수가 소명출판에서 출간한 김유정 연구서로는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2008), 『김유정의 귀환』(2012), 『김유정과 동시대 문학 연구』(2013), 『김유정과 나의 만남』(소명출판, 2013), 『김유정과 산책』(2014), 『김유정과 동행』(2014), 『김유정의 문학광장』(소명출판, 2016), 『김유정의 문학산맥』(2017), 『김유정 문학의 감정 미학』(소명출판, 2018) 등이 있다.

부른다. 집이라야 大概 씨러질 듯한 현 草家요 그나마도 五十戶밖에 못되는 말하자면 아주 貧弱한 村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데 없는 귀여운 田園이다. 山에는 奇花異草로 바닥을 틀었고, 여기저기에 졸졸거리며 내솟는 樂水도 맑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우에서 골골거리며 까치와 是非를 하는 노란 피꼬리도 좋다.

周圍가 이렇게 詩的이니만치 그들의 生活도 어데인가 詩的이다. 어수룩하고 꾸물꾸물 일만하는 그들을 對하면 眞 世上사람을 보는 듯 하다.¹⁵⁾

수필 첫 소절에 실례마을의 풍광을 묘사하고, 마을이름의 연원을 소개한 후 냇물과 까치와 피꼬리가 어우러지는 ‘귀여운 田園’에서 시적으로 생활하는 원주민의 모습은 1930년대 강원 영서 주민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생활상이다. 뒤이어 교통이 불편함으로써 정보가 부재하고 도회와 멀기에 인심이 야박하지 않은 마을주민의 심성을 설명한다. 초목의 특수한 내음새, 땀뿌기의 울음, 소모는 노래, 송아가루, 샘물소리를 지닌 오월의 고향풍경은 ‘理知없는 無識한 生活’에서 갖게 되는 ‘純潔한 情緒’를 느끼게 한다. 잔디는 침대가 되고 바둑이와 벌롱 자빠져서 목상하는 재미를 보거나 산속에 누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느끼는 평화로운 일상에서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주의적인 강원 로컬리티의 특징이 나타난다. 동리사람이 지나가면 손짓하여 밥과 술을 나누는 온정과 허여는 작품 속에서 음식을 나누듯이 여성을 공유하는 전근대적이면서도 원시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시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상해나 사건이 부재하지만 현사회와 단절되거나 도회와 절연된 김유정의 고향은 자연이 수려하고 아름다우며 착하고 인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초라한 고향’이라며 고향을 지우거나 거리를 두었던 이효석이나 ‘상실된 유토피아’로 이성적으로 사유했던 이태준과¹⁶⁾ 차이를 보인 김유정은 시적이고 순결하지만 가난하고 억압된 식민지 근대성을 내포한 고향으로 소설 속에서 웃음과 해학을 동반하는 처절하고 슬픔이 내포된 현실로 묘사되고 있다. 금전이나 들병이 소재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서 비롯된 모티프로써 그의 고향이 과장되거나 계몽성을 지니지 않은 배경을 이룬다. 귀여운 고향과 고통스러운 고향의 양면성을 드러낸 김유정 문학 속

15) 이효석, 「五月的 산골작이」(조광 1936.5),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전집』, 장, 2012, 423쪽, 이후 수필 및 소설 인용은 위의 책을 말한다.

16) 이미림,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강원 영서지역 재현 양상」, 『해람인문』 제45집,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2018, 74쪽.

고향은 서정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고향과 궁핍과 배신으로 얼룩진, 식민지 자본주의로 인해 피폐해진 농촌¹⁷⁾이 동시에 드러나는 양가적인 공간이다.

마을 속 주요공간으로는 들병이나 유랑민, 농군들이 드나드는 주막인바, 집이 안전성이 보장되고 바깥과의 경계가 확실하게 지어진 폐쇄된 장소인 반면 주막의 안과 밖의 공간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개방된 장소로서 공동체의 삶의 모습¹⁸⁾을 드러낸다. 주막과 술집에서 들병이와 마을총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김유정 소설의 주제와 구조를 형성한다. 마을의 끝자락(동네어귀의 술집 동네 맨 뒤편에 위치한 물레방앗간 등)이자 가장자리 공간은, 작고 독립적인 농촌공동체 규범으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며 상처받은 사회적 타자들(들병이, 뜨내기, 걸린 등)이 머물고 쉬어가는 이타성을 허락하는 윤리적인 공간¹⁹⁾이다. <총각과 맹꽁이>에선 외지에서 온 들병이를 사이에 두고 여러 마을총각들이 경쟁하며 <가을>에선 아내를 소장수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소설 속 묘사된 고향은 첫째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으로 그려진다.

- ① 가혹한 도지다. 입쌀석섬, 버리·콩·두포의소출은 근근뎡섬. 논아먹기도못된다. 번디 밭이아니다. 고목느티나무그늘에 가리어 여름날 오고가는 농군이쉬든 정자터이다. 그것은 지주가우리로 갈아도지를 노아먹는다. 콩을 심으면 입나기가 고작이요 대부분이 열지를 안는것이였다. 친구들은 일상덕만이가사람이 병신스러워, 하고 이밭을 침배타비난하였다. 그런 덕만이는 오히려안되는 콩을 탓할뿐 올에는 조로바꾸어 심은것이였다.²⁰⁾
- ②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에는 물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식놈 킁킁겨려, 년은 옷이 없으니 떨고있어 이리한때 그냥 백일수야 있느냐 트족태죽 꼬집어 가지고 년의 비녀쪽을 툇 잡고는 한바탕 홀두들겨대는구나²¹⁾
- ③ 때는 한창 바블 추수 때이다. 농군치고 송이파적 나을 놨은 생겨나도 안엇스리라. 허나 그는 꼭 해야만할 일이 업섯다. 심프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것이 더럭 잇느냐면 잇기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업고 집도업고 자식업고. 방

17)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향토의 발전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168쪽, 이현주, 「김유정 농촌소설에 나타난 '향토' 표상」, 『시학과 언어학』 제31호, 시학과언어학회, 2015, 173쪽.

18) 양정애, 앞의 논문, 146-147쪽.

19) 박훈하, 『지금, 로컬리티의 미학』, 신생, 2015, 174-175쪽.

20) 김유정, <총각과 맹꽁이>(신여성, 33.9), 전신재 편, 앞의 책, 30쪽.

21) 김유정, <안해>(사해공론, 35.12), 위의 책, 171-172쪽

은 잇대야남의 것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아침만해도 한 친구가 차자와서 벼를털텐데일좀 와해달라는걸 마다하였다.22)

④ 맛불잡고 굶느니 아내는 다른 데 가서 잘 먹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그 돈으로 잘 먹고 이렇게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으나, 복만이외의 뒤를 따라가며 나는 도리어 나의 걱정이 더 큰 것을 알았다. 기껏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털어서 쪼개고 보니까 내 몫으로 겨우 벼 두 말 가웃이 남았다. 물론 털어서 빚도 다 못 가린 복만에게 대면 좀 낄는지 모르지만 이것로 우리 식구가 한겨울을 날 생각을 하니 눈앞이 고대로 캄캄하다. 나도 올 겨울에는 금점이나 좀 해볼까, 그렇지 않으면 투전을 좀 배워서 노름판으로 쫓아다닐까, 그런대로 밀천이 들 터인데 돈을 없고 복만이같이 내다 팔 아내도 없다. 23)

위의 인용은 일년 내내 소작을 해봐야 생계유지가 힘든 식민지 사회구조적 모순을 농촌실생활을 통해 예리하게 파헤친다. ①의 <총각과 맹꽁이>에서는 농작이 불가능한 땅조차 도지로 만들어 소작을 주는 지주의 횡포와 그로 인해 콩수확이 흉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날카롭게 서술한다. ②의 <안해>에서도 농사로 먹고살기 힘들어 아내를 패거나 들병이로 내모는 현실을, ③<만무방>에서는 농토가 주어지지 않아 산속을 헤매며 농사와 정착을 포기하는 농군의 모습이, ④의 <가을>에서의 아내를 오십원에 팔려는 복만을 말리려고 했던 ‘내’가 팔 아내조차 없어 오히려 부러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린다.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수확으로 빚을 지기 마련이라 소장수에게 오십 원에 아내를 팔려는 것을 말리려던 ‘나’는 장가도 못간 처지인지라 오히려 복만이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농사환경으로 당장을 건뎌야 하는 농군들이 도박, 금전, 찰나적인 쾌락에 빠지는 현실이 1930년대 강원 영서 지역의 일상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주의 만행으로 농사만으로는 연명이 어려워 농사를 포기하거나 깊은 산중에 올라 산나물을 채집하여 먹거나 장에 팔아 생활을 영위하며, 우편, 정보가 뒤쳐지는 산골 오지로 그려진다. 이는 춘천이 지형학적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 산간분지로²⁴⁾, 실레마율이 ‘앞뒤 좌우에 굽적굽적한 산들이 뺨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움푹한 떡시루 같다’는 설명처럼 해발 652미터의 금병산이 있는 지리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22) 김유정, <만무방>(조선일보, 35.7), 위의 책, 96쪽.

23) 김유정, <가을>(사해공론, 36.1), 위의 책, 193쪽.

24) 유인순, 「소설 속 춘천의 문학지리(上)」, 『한중인문학연구』 제28회, 한중인문학회, 39쪽.

① 주뿔주뿔 변명을하고는 가든길을 다시 향하게내걸었다. 안해라고 요새 이 돈이원이 급시로 필요함을 모르는배도 아니었다. 마는 그의 자격으로나 로동으로나 돈이원이란 감히 땅땸도 못해볼형편이었다. 버리랴야 하질것없는 것.아침에 이려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가영산이올라 산으로빼는 것이다. 조고만 종뎡이를 허리에 달고거한 산중에 드문드문 백여잇는 도라지 더덕을 차저가는것이였다. 깃흔 산소공로 우중충한 돌뽕바기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작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돌러면 젓먹든 힘까지 녹아나리는 듯 진땀은 머리로 발끝까지 쪽흘러나린다.²⁵⁾

② 올라갈수록 덩불은 우겼다. 머루며 다래, 측, 게다 이름모를잡초. 어것들이 우라레로 이리저리 서리어 쯤체길을 내지 안는다. 그는 잔디길로만 돌았다.넙적다리가 벌죽이는 찌저진 고깃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뎡는다. 손에는 흙으로 역저들은 일곱개 송이. 늙은소나무 마다 가선 두리번거린다. 사냥개모양으로 코로 쿡, 쿡,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갓고 저것도 송이. 어떤게 알짜송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소보룩한데 갈입히 하입 뚝 떨어졌다. 그입흡살뎡이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올라왔다.²⁶⁾

③ ...체부가 잘 와야 사흙에 한 번밖에는 더 들르지 않는 줄을 저라고 모를 리 없고 그리고 어제 다녀갔으니 모레나 오는 줄은 변연히 알련마는 그래도 이뿐이는 산길에 속는 사람같이, 저 산비탈로 꼬불꼬불 돌아 나간 기나긴 산길에서 금시 체부가 보일 듯 보일 듯싶었는지, 해가 아주 넘어가고 날이 어둡도록, 지루하게도 이렇게 속 달게 체부 오기를 기다린다.²⁷⁾

①의 <소낙비>의 춘호처는 도박자금 이원을 마련해오라는 남편의 뒤달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오른다. 나물채취는 그녀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쇠들엄마 집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지만 산에 오른 건 부자 양반 이주사와 해서는 안 될 상황을 피하려는 막연한 불안 때문이다. 남편의 폭력과 강압적인 노동착취와 이주사에 의한 성착취는 식민지 자본주의 근대사회가 여성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잔혹했는지를 말해준다.

②의 <만부방>의 웅철이도 농사를 포기하고 주로 산에서 송이채집으로 주립을 채우고 내다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농사를 지어도 지을 농토가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이 시기의 삶은 강박하고 궁핍한 하루살이 인생인 것이다.

③의 <산골>의 이뿐이는 나물을 뜯기 위해 매일 험한 산속을 기어오르지만 그곳은

25) 김유정, <소낙비>(조선일보, 35.1), 전신재 편, 앞의 책, 40쪽.

26) 김유정, <만부방>(조선일보, 35.7), 위의 책, 96쪽.

27) 김유정, <산골>(조선문단, 35.7), 위의 책, 135쪽.

도련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을 순진하게 믿는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는 석승에게 편지를 쓰게 한 후 우편배달부가 오길 기다리지만 깊은 산골마을에선 삼일에 한번 이 마을을 다니러 올 정도로 강원도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우편조차 쉽지 않은 심심유곡이었다.

세 번째 특징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정착과 가족형성이 불가능한 현실이 그려지며, 이동경로가 드러난다. 이들은 고향에서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하여 일확천금을 노려 서울로 입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춘호는 아즉도 분이 못풀리어 부루통헌이 홀로 안겼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진지벌서 삼년이 되었다. 해를이어 흥작에농작물은 말뚫되고 딸아빗쟁이들의 위협과악마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하릴업시 집, 세간사리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를 하였든것이다. 살기조흔곳을 찾는다고 나어린 안해의 손목을 이끌고 이산저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 들은 것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살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골엘 가 호미를 잡아보아도정은 조그만치도 안뵈히고 거기에는 오즉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벌려 그를 맞을뿐이었다. 터무니 업다하여 농토를 안준다. 일구녕이 업스매품을 못판다. 밥이 업다. 결국엔 그는피폐하여가는 농민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뻗었다.²⁸⁾

춘호부부는 고향 인제를 야반도주하여 춘천까지 왔으나 외부인으로서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내의 매춘으로 번돈 이원으로 도박을 하여 이동자금을 마련한 후 서울로 갈 계획이다. 고향을 상실하고 타지에서 이방인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다가 또다시 대도시로 이주하는 유랑하는 디아스포라적 삶이 1930년대 우리 민족의 모습이었다. 자작농→소작농→도시노동자라는 신분전환과 고향상실성, 도시이주는 불안하고 안정이냐 정착할 수 없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네 번째는 금 삼부작에 나타나듯이 도박과 금전으로 표상되는 한탕주의가 반영되었다는 점도 1930년대 강원지역의 특징이었다. 그의 고향은 인근에 사금이 나와 개울바닥이 온통 파헤쳐져 성한 곳이 없을 정도²⁹⁾였기에 <금따는 콩밭>, <노다지>, <금>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군상이 출몰했다.

28) 김유정, <소낙바>(조선일보, 35.1), 위의 책, 47쪽.

29) 송희복, 「청감(聽感)의 시학, 생동하는 토착어의 함: 김유정파 이문군블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755쪽.

이와 같이 김유정 수필 및 소설 속 강원 로컬리티는 교통의 불편과 정보의 부재, 문명과 도회와의 단절로 인한 순진하고 궁핍한 깊은 산골로 그려진다. 또한 뜨내기, 따라지, 들병이가 머물다 가는 내부 디아스포라의 부유와 방황하는 삶을 통해 식민지 현실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리얼하게 재현한다. 귀엽고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하는 고향은 결혼이 불가능한 농촌총각들과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부부들의 불안정한 일상과 대비되어 더욱 아프고 리얼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김유정 문학은 진한 울림과 강렬한 여운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3. 농군과 들병이로 본 강원도민

김유정이 지닌 수많은 질병 중 하나가 염인증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간이해는 자학적이고 피학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宿命的으로 사람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 한다는 것이 좀 더 適切할는지 모릅니다. 늘 周圍의 人物을 警戒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이 結局에 는 말없는 憂鬱을 낳습니다.

그리고 相當한 肺結核입니다. 最近에는 毎日같이 피를 뱉습니다.

나와 똑같이 憂鬱한 그리고 나와 똑같이 피를 뱉하는 그런 女性이 있다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그를 限없이 尊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自身이 무언가를 그 女性에게 배울 수 있으리라고 期待하기 때문입니다.³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춘천 실례마을 주민은 고지식하고 순진하며 정이 많고 빈한하다. 수필 <오월의 산골작이>에서 작가는 ‘어수룩하고 쭈뼛꾸물 일만하는 사람들’로 농군을 묘사한다. 마을사람들은 나름 목적을 갖고 계산하지만 쉽게 들통나고 속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떨어지고 순진한 인물로 상징된다. <총각과 맹꽁이>의 들병이에게 “저는 강원도 춘천군 신남면 중리 아랫말 사는, 광산 김씨로 세튼넛인데두 총각”이라며 복만이 자기를 소개하는 우스꽝스런 태도로 친구들의 비웃음을 사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성격을 지녔으며, 몽태에게 속아 여성을 얻지 못하자 “살재두 나는 인전 안 살 터이유!”

30) 김유정,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조선일보사, 36.5), 위의 책, 428쪽.

라며 자존심을 지키는 어설피고 어수룩한 인물이다.

촌뜨기 정체성은 강릉 우추리 출신인 이순원 소설의 촌놈의식이나 원주 출신 작가 이기호 소설의 ‘시봉’, ‘복만’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재생산³¹⁾되는 강원도민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농민들은 산에서 약초나 나물을 캐거나 도박, 금광 등 일확천금을 노리며 아내를 매춘시켜 빌붙어 먹고산다. 착취와 억압이 가장 심했던 식민지 강원농촌을 작가는 아이러니라는 문학적 장치로 형상화함으로써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드러낸다. 우둔하고 떨어지는 인물들은 모순되고 처참한 식민지 현실을 잘나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내를 지킬 수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현실에서 김유정이 그린 강원 영서 지역의 농촌과 산골 모습은 아름답고 귀엽기에 더욱 아프고 잔인하게 전달된다.

김유정 문학을 들병이 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소설에서 들병이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남성들이 취업이나 소작을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속에서 아내, 딸, 어머니는 직업전선이 뛰어들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한다. 남편도 아내의 성적 일탈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성착취, 노동착취는 여성들의 이중삼중의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하지만 그녀들은 이에 저항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려고 도둑질을 하거나 외간남자들을 유혹해야 한다.

<정조>의 행랑어멈, <산골>의 이쁜이, <총각과 맹꽂이>의 들병이의 애교와 성적 교태는 여성타자들의 몸언어이다. <정조>의 남편은 본처뿐만 아니라 여학생첩, 행랑어멈 등 여러 여성을 소유하며, <소낙비>의 이주사도 아내 이외에 석돌엄마, 춘호처 등 마을여자들을 공유한다. 마을총각들도 술값과 밥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한 명의 들병이를 돌려가며 성적 욕망을 충족한다. 여성을 공여 가능한 재화로 삼는 거래는 여성의 인권이나 의사를 묵살하고 자행되는 물건이나 가축,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여성들 또한 이를 수용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함으로써 문란한 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성적 하층민의 위치에 있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영기어 걸음을 방해”하는 <소낙비>의 아내는 연한 허리와 잔약한

31) 유머와 해학을 바탕으로 시대풍자를 하는 김유정 소설은 소작인, 머슴, 거지, 도박꾼, 유랑민들로 자본주의와 근대사회에 약삭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거나 떨어지는 인물들로 이기호 소설에서도 백수, 불량배, 범법자, 바바리맨, 건달, 짱패, 보도방 실장, 저능아, 창녀 등으로 나타난다. - 이미림, 「이기호 소설에 나타난 197,80년대 중소도시 표상」, 『우리문학연구』 제57집, 우리문학회, 2018, 265쪽.

몸으로 이권을 해오라는 남편의 폭력과 욕설을 피해 호랑이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 산중을 오르면서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다. 궁핍한 생활로 자신의 몸조차 단속할 수 없는 그녀는 남성들의 먹잇감이 된다.

자본주의 근대 농촌사회에선 권력과 자본을 지닌 남성이 여러 여성을 소유할 수 있지만 하층민 남성은 아내를 얻지 못하는 성적 물질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가부장제와 남성연대 안에서 여성들은 남편에 의해 소와 교환되거나 몸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삶을 유지한다. 여성의 성적 공유는 일부일처제라는 근대사회의 기준이 작동되지 않는 전근대성과 가부장제, 식민지 상황이 중첩된 1930년대 한국적 현상이다.

① 들병이를 혼자 켜안고 물리도록 시달린다 두터운 입살을 이그리며, “요것아, 소리 좀 해라, 아리랑 아리랑” 고갯짓으로 계집의 응등이를 두드린다 좁은 봉당이 팍팍다 상하나 흐미한 등잔을 복판에 두고 취한 얼굴이 청성긋게 죄어안졌다 다가치 눈들은 계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공석에서 베투기는 들끌리며 등어리 정강이를 대구 뜻어간다 그러나 굵는 것은 사내의 체통이 아니다 꼭 참고 제 차지로 계집 오기만 눈이 빨개 손꼽는다 “돌려라 돌려, 혼자만 주무르는 게야?” 뭇태는 계집의 어깨를 잔뜩 움켜잡고 부라질을 한다³²⁾

② “권주가? 아 갈보가권주기도모르나 으하하하” 하고는 무안에취하야 폭숙인 계집뺨에 다 꺼칠꺼칠한 턱을문질러본다 소리를암만시켜도 아랫입살을 깨물고는 고개만기우릴뿐 소리는못하나보다 그러나 노래못하는곳살을 깨물고는 고개만기우릴뿐 소리는 못하나보다 그러나 노래못하는곡도조타 계집은 령나리는대로 이무릅저무릅으로 울아안지며 턱미 테다 술잔을 바쳐올린다 술들이 답북취하였다 두사람은 고라저서코를곤다 계집이칼라며 리무릅우에 안저담배를피어올릴 때 코웃음을홍치드니 그무지스러운손이 계집아랫배가죽 을 사양업시움켜잡았다 별안간 “아야” 하고 퍼들짱하드니 계집의몸뚱아리가 공중으로도 튀어오르다 떨어진다 “이자식이 너만 돈내고먹었니?”³³⁾

남편과 지주, 양반 등의 외간남성, 마을총각들에게 여성은 지배와 통제 속에 살덩이, 전리품, 선물, 소와 같은 가축과 동일시된다 ‘고깃덩어리’나 ‘육괴(肉塊)’로서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여성들은 부재지시대상³⁴⁾이 된다

32) 김유정, <총각과 땡공이>(신여성, 33.9), 전신재 편, 앞의 책,

33) 김유정, <산골나그네 >(계일선, 33.3), 앞의 책, 21쪽

34) absent referent는 우리가 먹는 고기가 한때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는 생각과 분리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기 이전에 누군가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다 성폭행피해자나 구타당한 여성이 자신을 고깃덩어리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캐럴제이 애덤스, 류현 역, 『육식의 성정치』, 이배진, 2018, 104-105쪽.

<江原道 女性>에서 그려진 여성은 “밥 짓고, 애기 낳고, 물 갖는 안락녀”이다. 그녀들은 교통과 문화의 부재로 생활의 과장이나 허식이 없는 “싱싱하고도 실락한 原始的人物”이며 근대 미용술과 거리가 멀다고 추물은 아니고 “幽玄한 自然美랄까 或은 天來無縫의 純眞美”를 지녔다. “해여진 옷에 뚫어진 비선, 或은 맨발로 칠떡칠떡 돌아다니며 어디 하나 그럴 데 없는 無關한 表情”으로 “教養이라는 놈과 因緣이 먼만치 무뚝뚝한 그들”이지만 정이 많다고 묘사한다. 이는 무뚝뚝하고 냉담하지만 속정이 깊고 생색을 내지 않은 살아가는 강원도민의 성정이다. 산중에서 생활하며 동백꽃이 필 때 즈음 버덩의 서방님을 그리워하는 때난봉이 나고 넓은 버덩을 동경하는 산골 안락녀들이 김유정이 바라보는 강원도 여인들이었다.

<총각과 땀뽕이>의 덕만은 부칠 수 없는 땅까지 소작을 놓는 지주의 잔인함에도 불만이나 불평을 드러내지 않으며, 아내들도 도박자금이나 서울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라며 폭력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매춘과 매매를 자행하는 남편들에게 반항하거나 토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고 숙명론적인 태도를 보인다. 아내의 성적 일탈과 비도덕적인 욕망은 가족에 대한 애착을 보였던 김유정의 무의식에 근거하지만 여성의 관점에선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여성 학대이자 수난이었다. 비록 식민지와 자본주의 근대를 비판했지만 ‘생산수단으로 물화된 여성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성의 존재로 가정’³⁵⁾시킴으로써 여성문제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천진난만과 순진성은 교통의 불편으로 야기된 정보부재에서 비롯된 강원도민의 특성으로 지금까지 재생산되거나 외부로부터 요구받는 심성이다. 농촌노동자, 유랑민, 거지, 소작농, 금광노동자, 병자 등의 하층민 남성과 갈보, 들병이 아내, 매춘녀 등의 성적 노동자 그리고 따라지³⁶⁾, 만무방³⁷⁾ 인물유형은 강원지역의 궁핍과 유랑, 매음 현상을 지닌 1930년대 강원도민이다 <산골>의 이쁜이, 석송이, <총각과 땀뽕이>의 덕만과 몽태, 풍보, 더필이, <산골나그네>의 떡그머리총각 덕들이, <금따는 콩밭>의 수재, 영식이, <금>의 덕순이, <만무방>의 응오, 응철이, 성팔이, 재성이, <봄봄>의 점순이, <가을>의 복만이 등 김유정은 가난하고 고통스럽지만 발랄하고 생기있고 욕망

35) 신재원, 「김유정 소설의 가부장적 질서와 폭력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75호, 국어국문화회, 2016, 254쪽.

36) 노름관에서 쓰는 용어로 새곳과 여덥곳을 합쳐 남은 한곳을 뜻하며 힘없고 별볼일 없이 남아도는 존재를 말한다 김유정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37) 엮치가 없이 막된 사람이나 아무렇게나 생긴 사람을 뜻하며 김유정 소설 제목이기도 하다

에 충실한 하층민을 구현하며 양가적인 삶의 비의를 보여주었다

4. 민요/민속에 나타난 전근대와 근대의 혼효

김유정의 수필에는 시조, 민요, 노래가사 등이 자주 인용된다. 휘문고보 시절 하모니카를 불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등 서양음악을 즐겼던 김유정의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은 첫사랑 명창 박녹주³⁸⁾에게서 비롯되었다. 민요공동체로서 자유와 평등 지향, 생산력 향상과 신명 추구, 개방적 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한다는 한국민요의 주제를 통해 항일민족 및 민중해방의식을 고양하는³⁹⁾ 향촌사회에서 회자되었다. 또한 민중교육기관인 야학의 교과목 중 민중의식을 실현하는 노래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학습한 노래들은 조선 민중의 신지식 민주적 사고, 평등의식, 노동의 귀중함, 민족의식, 민족해방을 소원하는 것으로 조선민중이 가장 간절한 소망을 노래⁴⁰⁾했다. 금병의숙을 운영한 작가에게 아리랑을 비롯한 민요의 작품 삽입은 이러한 환경에서 배태되었다.

입히 푸르러 가시든 님이/白雪이 혼날려도 안오시네

잘살고 못살긴 내분복이요/하이칼라 서방님만 어더주게유

- <넙히푸르러 가시든님이> 중에서

아름이 죽어저서 무엇이 될고하니/蓬萊山 第一峯에 落落葬送 되었다가/白雪이 滿乾坤
할 제 獨也靑靑하리

- <어떠한 부인을 마지할까> 중에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피어라 노다가게/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팔만구암자,
재재봉봉에/아들 딸 날라고 백일기도두 말게우,/타관객리 나슨 손님을팔세두마라.

논밭田土 쓸만한건 기름방울이두등실/계집애 쓸만한건 직조간만 간다네.

아주까리 동백아 호내지마라/산골의 큰 애기떼난봉난다

네가두 날만치나 생각을 한다면/거리거리 로중에 열너비가 스다.

네팔짜나 내뺏자나 잘먹구 잘입구 소라반자 미단이 각장장판 셋별같은 늦요강 온앙금침

38) 유인순, 「김유정과 아리랑」, 『비교한국학』 제20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208쪽.

39) 나승만, 「민요공동체 연구」, 박이정, 2019, 281쪽.

40) 위의 책, 278쪽.

잔모벼개에 깔구뎡구 잠자기는 삶은 개다리 뒤틀리듯 뒤틀렸으니, 웅틀봉틀 멍석자리에
깊은 정이나 드리세

- <江原道 女性> 중에서

김열과 억압이 심한 사회에서 현진건의 <고향>에 나오는 노래나 이청준의 <남도소리> 연작 모티프인 판소리, 서편제는 한과 용서가 내재된 것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때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래가사를 인용한 현실비판은 김열과 억압을 피하는데 효율적인 문학적 장치이다. 김유정 수필 속에 삽입된 아리랑은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정조를 맞보도록, 때로는 일제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사실 속에 내재된 농정스러움과 해학을 채득하여 김유정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립⁴¹⁾시키는 역할을 했다. <만무방>의 웅칠이는 아리랑을 콧노래로 흥얼거리며 강릉을 그리워한다 “아리랑 띄여라 노다가세/별갈지 모래갈지 내모르는데/옥씨기 강낭이는 심어뒀하리”라는 가사에서 일 년 농사의 허망함이 나타나며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를 외치며 자유를 지향하는 탈농사적 삶을 제시한다

서구교육을 받고 근대식 서구식 생활양식을 좋아했고 하모니카를 연주했던 김유정은 일상 조선옷을 입는다거나 六字배기 같은 건 자다 들어도 싫지 않다고⁴²⁾ 말할 정도로 전통적이고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정서를 지녔다.

남편은 안해를 데리고안저서 소리를 가르킨다. 낮에는 勿論 벌어야 먹으니까 그럴 餘暇가 업고 밤에 들어와서는 안해를 가르킨다. 在操업스면 몇달도 걸리고 聰明하다면 한 달포만의 곳치 난다. 아리랑으로부터 양산도, 방아타령, 신고산타령, 배따라기-그러나 게 다 이 풍진 世上을 만났스니 나의 希望을 부르면 더욱 時勢가 조흘 것이다.

이러면 그때에는 남편이 데리고나가서 먹으면 된다. 그들이 소리를 가르킨다는 것은 藝術家的 名唱이 아니었다. 개끄는 소리라도 먹을 수 잇슬만치 洗鍊되면 그만이다.

안해의 등에 자식을 업혀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데리고 나간다. 山을 넘어도 조코 江을 몇식 건너도 조타. 밥 잇는 곳이면 산골이고 버덩을 불구하고 발길 닳는대로 流浪하는 것이다.⁴³⁾

41) 유인순, 「김유정과 의 동행: 그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야기」, 소명출판, 2014, 223-224쪽.

42) 이효석, 「설문: 生活問答, 趣味問答」(풍림 제3집, 37.2), 전신재 편, 앞의 책, 481-482쪽.

43) 이효석, 「朝鮮의 집사」(매일신보, 35.10.22.-29), 위의 책, 415쪽.

<朝鮮의 집사-들병이 哲學>엔 아내를 들병이로 내놓기 위해 남편이 소리를 가르치는 장면을 서술한다. 아리랑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민속음악은 서민들의 애환과 예술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통예술로 조선인의 비참한 생활상과 현실비판의식을 표현한 채 유행⁴⁴⁾되었다. 생계를 위해 전국을 떠도는 신세이니만큼 강원도아리랑뿐만 아니라 경기민요인 양산도와 방아타령, 함경도민요인 신고산타령, 평안도민요인 배따라기 등을 연습하고 있어 전국을 떠돌았던 들병이 부부의 애잔하고 고달픈 일상을 유추할 수 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으로 시작되는 민중가요 희망가는 우울하고 비탄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노래로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사회를 반영한다. 특히 희망가는 市勢가 더 좋다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탄조의 현실도피적 염세적 색채를 담고 있어 ‘절망가’로서의 시대상과 1930년대 음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김유정 소설과 수필에 인용되는 관소리 재담과 민요들은 검열을 피해가며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문학적 장치이자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남도소리, 강원도아리랑, 민요 및 잡가가 서민이나 들병이의 입을 통해 구전됨으로써 민족문화말살이라는 위기의 시기에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김유정 소설엔 전근대적인 민속신앙과 산제 및 결혼식 등 당대의 풍습이 재현된다.

①...여러사람의 힘을빌리어 덕돌이입에다혼집신짜를 물린다. 버들껍겨린다. 다시라우기를 두손에 훌켜잡고 끌고와서는 털어노흔벼무덕이우에 머리를 틀어박으며 동서남북으로 큰절을한다. “야아! 야아! 아!” “아니다아니야 장갈갓스면 산신령에게 이려하다말이잇서 야지 괜실히 산신령이노하면 눈갈망난이(호랑이) 내려보낸다.⁴⁵⁾

②“새벽에 산제를 좀 지낼텐데 한번만 더 궤와” 남의말에는 대답없고 유하게 흘개늬은 소리뿐 그리고 들어누은채 눈을 지긋이 감아버린다. “죽거리두 없는데 산제는 무슨” (중략) “널 산제를 지낸다는데 쌀이 있어야지유” 하자니 역 낮이 화끈하고 모닥불이 나라 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사람이었다. “암 그렇지요 산신이 벗어나면 죽도 그릅 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온악이 금점에 장구 딸아난몸인만치 이런 일에는 적잔히 속이 티었다. 손수쌀닷되를 떠다주며 “산제란 안지냄 몰라두 이왕 지낼내면 아주 정성끗해야 됩니다. 산신이 노하길 잘 하니까유” 하고 그비방까지 깨쳐보 낸다.⁴⁶⁾

44) 윤명원, 「일제 강점기 민속음악의 전승양상-관소리, 창극, 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0권, 한국국악학회, 2006, 166-167쪽.

45) 김유정, <가을>, 전신재 편, 앞의 책, 25쪽.

46) 김유정, <급마는 콩밭>, 위의 책, 71-72쪽.

③ 개돼지는 꺾꺾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 아하 물둥이를 자주 이니까 백따귀가 옴츠라 드나부다. 하고 내가 넌죽넌죽이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가면 소낭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담엔 떡갓다놓고 고사 드립조니까”하고 치성도 한두 번 두린 것이 아니다. 어떻게 돼먹은 낱지 이래도 막 무관해나.47)

1930년대 강원도는 산신령이나 산신에게 기원하는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관습에 의존함으로써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공존했다. 대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채 먹을 찢조차 없지만 꾸어와서라도 산제를 지내는 시골사람들의 맹신이 나타난다. 산제, 서낭당에 대한 기원은 한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근대자본주의로 인한 농촌의 피폐와 빈궁화 현상을 미신과 기복신앙에 기대고 기원함으로써 현실의 고달픔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5. 토착어, 구어, 감(청)각어로서의 로컬리티 언어

김유정만의 독특한 문체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진바 작중인물유형인 하층민의 기층언어는 현장성을 생생하게 살리는데 효과적이다. 서민사회의 비속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음하는 대로 표기한다는 점, 언어의 청각적 쾌감 자체를 즐긴다는 점, 요설체의 문장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관소리 언어와 유사48)하다거나, 청각의 시학과 생동하는 토착어의 힘으로 규정하면서 청각적 문체의 전통계승, 지역적 개인적 방언 구사, 토착어의 자연발생적인 감성과 심의, 뜻과 글보다는 소리와 말로 구현된 문학성, 생활언어, 구비문학 속 재담 수용49)으로서의 김유정 문체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토속어 및 방언, 육담, 육설, 비속어를 적극 배치한 구어 전통이 근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의미를 지니는바 이는 공식적 단일어의 구축을 통해 중앙지배세력의 정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함축한 표준화, 표준어라는 근대에 대한 저항을 지닌 김유정 문학의 기층계급의 언어를 수용한50)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장에

47) 김유정, <봄·봄>, 위의 책, 157쪽.

48) 전신재, 「관소리와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정서」, 김유정문학촌 편,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소명출판, 2008, 175쪽.

49) 송희복, 앞의 논문, 751쪽.

50)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출판, 2013, 314-316쪽.

밀착된 김유정 문체와 로컬리티 어휘는 작품의 완결성을 성취하는데 기여한다

그의 수사는 사물이나 동식물에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산골>의 ‘험상스러운 바위’, ‘우거진 숲’, ‘홍측스러운 산’이나 <총각과 맹꽁이>의 ‘가혹한 토지’, ‘귀여운 산’, ‘고운 봉우리/험상곳은 봉우리’, <소낙비>의 ‘쓸쓸한 공기’, ‘거칠어가는 농촌’, ‘매미의 애끓는 노래’, ‘그옥한 산골’엔 작가나 서술자의 심리나 정서가 드러나 있다. 땅, 산, 바위, 숲, 산골에 감정을 넣어 쓸쓸하거나 그옥하고 귀엽다는 정동적 표현은 자연친화적인 로컬리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에 주인공을 투사하여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총각과 맹꽁이>에선 친구에게 속아 바보가 된 덕만이 “비웃는 듯이 음흉맞게 ‘맹-’ 던지면 ‘꽁-’하고 간드러지게 받아 넘기는” 맹꽁이에게 감정이입되며, <동백꽃>의 청춘남녀도 자신들의 닭싸움에 자신들을 투사한다. 이는 강원 출신 작가인 김동명 시나 김유정, 이순원 소설에서도 나타나는 강원문학으로 소, 닭이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론 감각어 특히 청각어로 표현되는 의성어, 의태어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소리와 말로 표현하는 구어체 문장의 특징 때문이다.

산골의 가을은 왜이리고적힐까! 압둘울타리에서 부수수하고떨뼌은진다 바로그것이귀미테서 들리는 듯 나죽나죽속삭인다 더욱 몸쓸건 물소리 골을휘돌아맑은샘은 흘러나리고 야릇하게도 음툼을 읊는다 풍! 풍! 풍! 쪼록 풍! 박가테서 신발소리가 자작자작들린다 귀가번쩍 띄어 그는방문을가볍게 열어제친다 머리를 내밀며 “덕돌이나?” 하고 반겼으나 잠잠하다 압둘건너편 솜옹우름감돌아 싸늘한바람이락엽을 훌부리며 얼굴에부다친다 용마루가쌍쌍운다 모진바람소리에놀래여 멀리서 밤개가 요란히짓는다 “전어른 게서유?” 몸을돌리어 바누질거리를 다시집어들랴할제 이번에는 짜정인기가 난다 황겁하게 “누기유?” 처음보는 안악네가 마루끄테와섯다 달빛에빛기어 검붉은얼굴이 햇속하다 치운모양이다 그는 한손으로 머리에들렛드왜수건을벗어들고는 다른손으로 허터진머리카락을씨담어 올리며 수집은 듯이 주뻗뻗뻗한다 “저……하룻밤만 드세고 가게해주세요.”⁵¹⁾

하늘을 맑게 개이고 이쪽저쪽으로 뭉굴뭉굴 피어올른 흰 꽃송이는 곱게도 움직인다. 저것도 구름인지 학들은 쌍쌍이 짝을 짓고 그새로 날아들며 끼리끼리 어르는 소리가 이수퐁까지 멀리 흘러나린다. 각가지 나무들은 사방에 잎이 옥었고 땃별에 그잎을 퍼들고 너훔너훔 바람과 아울러 산골의 향기를 자랑한다. 그 공중에는 나르는 꾀꼬리가 어여쁘고 노란 날개를 팔닥이고 이가지 저가지로 울어앉으며 흥겨운 행복을 노래부른다. -고

51) 김유정, <산골나그네>(제일선, 33.3), 전신재 편, 앞의 책, 18쪽

이! 고이고이! 요렇게 아양스리 노래도 부르고- -담배먹구 꼴비어! 마진 쪽 저 바위밑은
 필시 호랑님의 드나드는 굴이리라. 음침한 그 우에는 가시덤불 다래냉굴이 어저러히 얼
 클리어 지붕이 되어있고 이것도 돌이랄지 연녹색 털복숭이는 올망졸망 놓였고 그리고 오
 늘두 어김없이 뻑뻑이는 날아와 그잔등에 다리를 머므르며- -뻑국! 뻑국! 뻑뻑국!⁵²⁾

<산골나그네>의 ‘부수수’, ‘나죽나죽’, ‘자작자작’, ‘쌩쌩’, ‘쭈뻑쭈뻑’과 <산골>의
 ‘몽글몽글’, ‘너홀너홀’, ‘올망졸망’, 등의 의태어가 대부분의 문장에 나타나며, ‘퐁!
 퐁! 쪼록 퐁!’의 샘소리나 ‘-고이 -이! 고이고이’ 하는 노래소리, ‘-뻑국! 뻑국! 뻑뻑국!’
 하는 새소리는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통해 시각과 청각 등 공감각적 표현으로 생동감과
 현장성, 청감의 울림을 예술적이고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역시 자연과 동식물과
 가까이 하는 강원지역의 특성에 기인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시투리와 육설, 재담 등 강원 민중의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리얼리티
 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김유정 문학은 강원문학의 대표성을 지닌다.

6. 결론

1930년대 강원 출신 대표작가인 김유정 문학을 로컬리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작가
 는 자신의 고향 실례마을을 ‘귀여운 전원’으로 설명하면서 수필과 소설 속에서 아름답
 고 시적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흑독하고 참담한 농촌생활을 묘사하였다. 또한 강원지
 역은 교통의 불편으로 인한 정보부재, 도회와 단절된 궁핍하고 깊은 산골로서 자연친화
 적이고 생태주의적인 특징을 지닌 공간으로 재현하였다.

농군과 들병이로 본 강원도민은 어수룩하고 일만하고 순진한 촌뜨기 정체성을 지니
 고 있다. 일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소작농의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통해 지주의 횡포와 식민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도박과 금전으로
 상징되는 한탕주의와 일확천금이 만연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은 가축, 물건,
 선물로 취급되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여성수난서사의 성적 대상으로 여겨졌다. 농군과
 몸 파는 아내는 이를 숙명론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
 기가 나타난다. 덕만과 덕돌이, 짐순이, 웅오, 웅철이, 성팔이, 복만이, 이쁜이로 대변되

52) 김유정, <산골>(조선문단, 35.7), 위의 책, 122-123쪽.

는, 발달하고 욕망에 충실한 시골 처녀총각들의 일상이 리얼하게 재현되는 강원지역은 생명력이 넘치면서도 가난과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양면적인 일상을 지녔다.

김유정 문학이 사회사적 자료이자 민속의 보고로 여겨지는 것은 민요와 민속에 나타난 풍습과 당시의 생활상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 때문이다. 작가가 사모했던 명창 박녹주의 영향으로 그의 문학엔 아리랑 같은 민요가 작품 속에 많이 삽입되며, 판소리체 문장, 사투리, 재담, 욕설 등 현장성 강한 언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항일민족 및 민중해방 의식을 고양하고 사회의 불만을 노래로 전달하는 방식은 검열과 감시가 심한 사회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식민지 근대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를 지니고 기복신앙에 의탁함으로써 전근대적인 의식이 마을사람들을 지배하며 결혼식 등 당대의 풍습도 그려졌다. 또한 로컬리티는 토착어, 구어체, 감(청)각어로서의 문체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자연에 감정을 기입하고 동식물과 동일시하는 자연친화적 태도는 이효석, 김동명, 이순원 등 강원 출신 작가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강원문학의 특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문장에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고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시각적으로 연출하여 생동감과 현장성을 불어넣는 김유정만의 독특한 언어 미학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춘천사투리와 하층민의 언어인 욕설과 재담, 판소리체 문장 역시 로컬리티 언어로서 김유정 문학을 독특하고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강, 2012.

2. 논문

문재원, 「1930년대 문학의 향토재현과 로컬리티」, 『우리어문연구』제35집, 우리어문학회, 2009.

박현선, 「김유정의 인식 지평과 존재의 언어」,

방민호, 「김유정, 이상, 크로포트킨」, 『한국현대문학연구』제44호, 한국현대문학회, 2014.

송희복, 「청감의 시학, 생동하는 토착어의 힘; 김유정과 이문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제7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신재원, 「김유정 소설의 가부장적 질서와 폭력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제175호, 국어국문학회, 2016.

양문규, 「구어표현과 서술체의 현재성: 김유정 소설」, 『한국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형성』, 소명출판, 2013.

양문규,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전통과 서구의 상호작용」,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양정애, 「이청준 소설의 남도 로컬리티 연구」, 『비평문학』제6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우한용, 「김유정 소설의 언어의식」, 『김유정과의 만남』

유인순, 「김유정과 아리랑」, 『비교한국학』제20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유인순, 「소설 속 춘천의 문학지리(上)」, 『한중인문학연구』제28호, 한중인문학회,

전상국,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문체」, 『김유정 문학의 전통과 근대성』, 전신재 편,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7.

전신재, 「판소리와 김유정 소설의 언어와 정서」, 『김유정 문학의 재조명』

최창현, 「1930년대 강원 작가의 작품 속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의 현실 대응」, 『강원문화연구』제28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9.

하정일, 「지역 내부 디아스포라 사회주의적 상상력」, 『민족문학사연구』제47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한상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강원도 여성상」, 『강원문화연구』제24집,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2005.

3. 단행본

- 강원사회연구회, 『강원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5.
- 김풍기 외, 『강원도 지역원형과 인문학적 작성』, 청운, 2014.
- 나승만, 『민요공동체 연구』, 박이정, 2019
- 남기택, 『지역, 문학, 로컬리티』, 심지, 2015.
-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고향’의 창조와 재발견』, 역락, 2007.
-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 박훈하, 『지금, 로컬리티의 미학』, 신생, 2015.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해안, 2009.
- 유기억, 『이야기가 있는 강원의 식물』, 강원연구원, 2018.
- 유인순, 『김유정과와 동행: 그의 생애와 문학, 그리고 문화콘텐츠 이야기』, 소명출판, 2014.
-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2.



KIM YOU JEONG FORUM

토론문

노성호 _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노용춘 _ 춘천민예총 전회장

박정애 _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사)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

최현순 _ 춘천문인협회 회장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토론문

노 성 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본 토론자는 문학 전공자가 아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의 발표문을 배우는 자세로 읽었다. 다행히 유명희 선생님 글은 평소 고민하던 지역문화에 관한 것이기에 부담을 덜 가지고 읽었는데, 이미림 선생님의 글은 아주 초보자의 심정으로 읽었다.

김유정은 1908년에 태어나 1937년에 2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누구보다도 그의 고향 춘천, 강원도를 사랑한 작가로, 고향의 가난한 사람들과 고향의 투박한 언어와 고향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다. 김유정의 짧고 열정적인 삶은 고향 사랑에 바쳐졌다. 그가 고향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그의 고향 춘천 실례마을에서 야학을 열어 고향 사람들을 계몽하였고 한편으로는 고향 사람들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고향의 언어로 그려내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의 작품들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한국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춘천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유정의 문학을 지역학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김유정 문학과 지역의 연계 고리를 찾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

『김유정, 문학촌 그리고 지역문화 - 김유정문학촌의 성과와 전망』

발표자는 지역학의 중심은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의 융·복합적 연구이고 지역학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문화를 알고 지역문화를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지역학의 핵심은 지역 문화의 구체적 발현점인 인물에 대한 연구이고, 시민 확산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로를 증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김유정문학촌에 대입하여 현황, 사업, 문학촌 연구성과, 문학촌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의 순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중 유료화 전환 이후 관객 수 감소와 관련해 의암류인석유적지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언급했다. 이러한 경향은 유적지 체류형 교육청 연계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의암류인석유적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시와 교육을 함께 하여 관람객 외에 의병체험 프로그램 등의 체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외 5천여 명의 청소년이 찾는 곳이 되었다.

김유정문학촌 내에도 청소년들이 체류하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례이야기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길은 길이가 8km로 약 2시간이면 걷기가 가능하고 길의 시작지점에 위치한 김유정 문학촌을 제외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만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연계 코스 개발이나 연계관광자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오늘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를 추가로 소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2004년 10월 세계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분야는 디자인, 공예와 민속예술, 미식, 미디어아트, 영화, 음악, 문학 등 7개 분야이다. 2018년 현재 72개국 180개 도시가 가입되었다. 한국은 서울(디자인 2010),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2010), 전주(미식 2012), 광주(미디어아트 2014), 부산(영화 2014), 통영(음악 2015), 대구(음악 2017), 부천(문학 2017) 이상 8개 도시(7개 분야)가 가입되어 있다. 이 중 부천은 도서관, 문학전통,

문학축제와 문학상, 만화, 부천 3대 국제축제 등의 내용으로 2017년에 가입이 되었다. 춘천과 비교하면 어떨까?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

이 발표문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은 생각할 것이 많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방, 지역과 달리 ‘로컬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앞선 발표자의 지역학, 지역문화라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내용면에서는 발표문에 덧붙여 추가적인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을 주로 하고 의문사항은 이것이다. 김유정 문학 속의 강원 로컬리티는 “고향의식과 궁핍/유랑으로서의 30년대 삶”에서 첫째, 가난하고 고단한 농촌 -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농사환경으로 당장을 건뎌야 하는 농군들이 도박, 금전, 찰나적인 쾌락에 빠지는 현실이 1930년대 강원 영서 지역의 일상이다.” “둘째 지주의 만행으로 농사 포기하거나 깊은 산중에 올라 산나물을 채집하여 먹거나 팔아 생활을 영위하며, 우편, 정보가 뒤쳐지는 산골 오지로 그려졌다.” “세 번째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한 정착과 가족형성이 불가능한 현실.” “네 번째는 도박과 금전으로 표상되는 한탕주의가 면연 - 1930년 강원지역의 특징이었다.”라고 하였다. 또 민요/민속에 나타난 전근대와 근대의 혼효에서는 “1930년대 강원도는 산신령이나 산신에게 기원하는 전통적이고 미신적인 관습에 의존함으로써 전근대성과 근대성이 공존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과 춘천과 강원도민의 삶이 김유정 문학 속에 잘 표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1920, 30년대 한국의 공통적인 것이 아닐까한다. 그래서 강원도 혹은 영서만의 정체성이랄까 특수성이랄까 하는 것이 표현된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발표문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강원도 교통문제에 대한 여러 글 중에 개벽과 강원도상황경계의 것을 들어 보자.

江原道는交通不便한것이第一苦痛이오 山水의天然의景致가조키는全國畧안이라世界無比할듯하며 生活樂地로는江陵이어느道에서든지其類를못보았다 思想으로는嶺東이嶺西보다進歩된듯하다 그리고僧侶의勢力만흔것은누구나놀랄것이오 人心淳厚는全國中第一일것이다(개벽, 64호, 1925.12.1. 13도의 답사를 맞치고서)

강원도는 지세가 험준하고 산악이 중첩하여 교통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문명의 수입이 매년 지체되고 인문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른 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열등한 것은 실로 상상 이상이다. 그리고 종래 교육기관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맹자가 많다. 영월 삼척의 산간 오지를 여행할 때면, 산에 사는 원숭이(세상 물질 모르는 두메산골의 촌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임)에 가까운 원시시대 그대로의 나무꾼과 마주친다. <중략> 영월과 그 외 지역에서 동리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과 음식점 간판을 읽을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영월군 상동면 녹번리는 80명 중에 3명, 영월군 하동면 용연리는 70명 중에 3명, 영월군 하동면 송현리는 18명 중에 1명, 평창군 읍내는 350명 중에서 23명(면리장과 군 참사를 포함), 울진군 원북면 흥부동은 40명 중 18명만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영동 연안 지역은 문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태백산맥에 가까워질수록 민도가 낮아진다. 영서 지역 역시 산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민지가 낮아진다. 또 군을 단위로 하여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하여 촌락으로 갈수록 민도가 낮아지는 경향이다.(강원도상황경계)

다음으로 강원도 이주상황에 대한 것은 다음 글이 참고된다.

江原도사람은東海에溺死한다

日本사람이南鮮에移民함에 南鮮사람들은집과쌍을다뺏기고北開島로건너간다그런데 江原道에는아직日本사람은그리웁스나 日淸戰爭중에黃平兩西사람이모도江原道로밀여 오고 서울과開城에서장사하는사람들도江原道가어수룩하다고모도와서各郡의여간朝鮮사람의商店은大開城안이면 京城사람이한다장사뿐안이라 다른사람들도작구온다 그리하여 江原道近日俗談에江原道사람은이와가티밀여가면東海로박게갈곳이없다하다 아이고— 이것이엇던悲慘한말이며기막힌말이나 他族에게征服되는것은勿論안이되엇지만同族에게 征服되는것도조타구는할수업대(개벽, 42호, 1923.12)

당시 농민 생활의 형편은 아래 사료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경제상태가 매우 불건전하다. 상농 중농은 아직 1년에 1백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하농은 27원의 손실을 본다. 그렇다면 농민의 부채상황은 현재 어떠한가. 영월금융조합의 조사에 의하면, 군내 총호수 7,472호 중에 3,186호에 채무자가 있고, 총액은 27,623원이다. 1호당 평균 9원 53전 5리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중 이하의 영세민에 많다고 한다(채권자는 평창 원주 경성과 경북 봉화, 영춘, 제천에 있다.) <중략> 이상은 생활정도가 비교적 열등한 영월군을 예로 든 것이다. 영동 각 군의 경제 상태는 상당히 우량하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상황경개)

마지막으로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속한 18인의 한 사람인 김유정을 춘천과 강원도만이 한국 나아가 세계 속에 문학가로 기념되고 김유정을 통해 춘천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문학분야에 가입되는 문화특별시가 되길 바라며 그 역할에 김유정문학촌이 중심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토론문

노 용 춘
춘천민예총 前회장

“문화콘텐츠”가 제 분야의 중요한 화두가 된 것도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전통이야기를 활용한 수많은 올레길과 작가를 기념하는 문학관도 100개가 넘게 만들어져서 지역마다 관광산업에 접목을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이 포럼을 하는 것도 김유정 문학에 담긴 로컬리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김유정문학촌이 지향해야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기 위해서 유명희 연구사께서는 ‘지역학으로서의 김유정 재조명’에서 김유정을 선택한 이유와 현실 그리고 5편의 논문을 통하여 김유정 문학촌의 실태와 과제를 잘 제시하셨으며, 이미림 교수께서는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에서 1930년대의 피폐한 농촌현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역학적 측면에서의 예술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학은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의 실질적 완성 측면과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임은 물론 문화콘텐츠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중요한 요소임이 이미 증명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술문화분야에 대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지원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각 시·군별 예산대비 예술문화예산을 살펴보면 0.2% ~ 3.5%로 극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나마 춘천시가 3.5%로 가장 높고 강원도는 1.2%에 그쳤습니다. 저는 문명의 한계로 가는 인공지능시대에 있어서 문명의 간극을 채울 예술문화 예산은 적어도 5 ~ 10%는 되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유정 문학에 투영된 강원의 로컬리티를 설명함에 있어서 농촌 피폐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되고도 완전하게 배제된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와 수탈 등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것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정 작가는 관찰자 입장에서 민중의 삶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지만 그의 부모는 6000석의 대지주였고, 그의 형은 술과 축첩 그리고 노름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함은 물론 광기 어린 삶으로 여동생에게 칼을 던져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현실과의 모순으로 인하여 김유정 작가가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고 우울과 혐인증 그리고 말더듬이라는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같은 행사는 충분한 홍보와 협조를 통하여 김유정문학촌 안에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김유정문학촌 밖에 있는 춘천시민 모두와 춘천시가 같이 참여하고 향유해야 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평판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처럼 김유정 문학과 김유정 문학촌의 평판을 좀 더 의미있고 좋게 만들어서 춘천시 최고의 문화자산이자 선행모델인 김유정과 김유정 문학촌의 평판을 꾸준히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서 춘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김유정 문학촌에 외박”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합시다.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토론문

박 정 애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지난주 토요일에, 저는 웅진작가아카데미 멘토 작가 5인, 멘티 예비작가 15인과 함께 김유정문학촌을 둘러보았습니다. 문학촌이 저한테야 고향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지만, 처음 접하는 일행에게는 대단히 신선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더군요. 감흥의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문학촌의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다.

둘째, 김유정 이야기집의 디자인이 다채롭고 구성이 탄탄하여 김유정문학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즐길 거리, 애깃거리가 풍부하다(예를 들어 웅진작가아카데미 사람들은 ‘뽀뽀’라는 낱말이 김유정 소설 속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다는 추정에 상당히 흥분하여 갑론을박을 벌였다).

셋째, 닭갈비, 막국수 가게뿐만 아니라 방앗간의 상호조차 문학촌과 어울려 공존·상생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작년에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문학촌에 데려왔을 때에는 감흥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한복을 빌려 입고 SNS에 게시할 만한 사진을 찍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은 김유정의 삶과 문학보다 문학촌이라는 비밀상적 공간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는 유명희 선생님 발표문에 나오는 것처럼 “김유정 문학촌의 자랑인 공간에 대한 더 깊은 천착과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새로운 기술인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도 제안하고 싶다”고 하셨기에 저도 상상해봅니다. 만약 실례마을에서 TV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에서처럼 김유정 소설의 스토리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쪽으로 과묵한지라 유명희 선생님께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할 만한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림 선생님의 「강원 로컬리티와 김유정 문학」은 김유정 작품세계의 로컬리티와 그 문학적 의미를 섬세하게 고찰해 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동백꽃」, 「봄봄」 정도는 알고 재미있어 하지만, 식민지 농촌의 단면이 오롯하니 형상화된 「소낙비」, 「술」, 「아내」 등의 작품에 대해서는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성 독자의 경우, 엄청난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기축, 물건, 선물로 취급되는” 여성수난서사가, 그것이 비록 당대의 현실이었다 하더라도, 젊은 여성 독자로서는 너무 불편하고 차마 감정이입하기 싫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거부감으로 인해 김유정 소설의 유다른 재미와 문학성마저 놓치는 듯하여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논문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아니라 제가 요즘 학생들과 김유정의 작품을 함께 읽을 때 부닥치곤 하는 곤경에 대해 선생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유정 문학과 지역학」 토론문

최 현 순
춘천문인협회장

가장 추천적인 것이 무엇인가?

「무지개처럼 나타났다가 무지개처럼 사라진 작가, 일제 암흑기 식민지 조국에서 고독과 실의와 병고와 실연과 가난으로 일생을 마쳤던 김유정은 향토문학사의 새장을 여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는 고향과 농촌을 발견했으며 토착어와 해학을 발견했다」

<춘천의 인맥, 김유정 편, 김영기, 1994년 춘천문화원刊>

작가 김유정을 잘 표현한 함축적인 글이라 하겠다. 김유정이 일찌감치 발견한 토착어와 해학성의 문학이 곧 지역문화이자 지역학이라고 생각함.

먼저, 춘천학연구소의 유명희 연구사의 주제발표에서 김유정문학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편 논문들을 예시하여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기능과 운영형태에 관하여 몇 가지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코자 함.

운영형태를 6가지로 분류함에 김유정문학촌을 ‘축제관광형’으로 꼽는다면 각각의 이유와 기능면에서의 한계 등을 들었는데 특히 교육연구지원공간으로서 미흡하다고 하였음. 이와 연계하여 ‘지역 문학인들의 양성형의 방법으로 문학상과 백일장 등을 통하여 문학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함에 동의하며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는 김유정문학촌이 지역문학인들의 학술연구 및 창작집필의 공간으로 확대하여 지역문학 발전에 중심역할을 해 줄 것과 둘째는 김유정 문학상을 선정함에 그 대상을 지역출신(춘천이나 강원도) 문인이나 작품의 제재나 배경이 지역(춘천이나 강원도)인 작품으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 및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자 함.

강릉원주대 이미림 교수의 주제발표에서는 김유정문학이 강원문학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결론하면서 지역문학사로의 활발한 발전방향을 언급하였음. 최근 발족한 춘천학연구소와 김유정문학촌이 연계하여 '춘천문학사'를 김유정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개설할 것과, 주제발표에서 제시한 토착어 연구와 들병이문학으로 특징되는 당시의 여성수난서사를 여성학 연구로 특성화 하여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코자 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음.

끝으로, 김유정문학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성과 공공성을 위한 제안으로, 지역학에서 추구하는 역할에서 유무형 정서적 유산의 가치가 크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제안으로 '김유정문학촌'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함을 추진함으로써 최초의 '문학촌 등재'가 되는 뜻깊은 사례를 지역에서 이룩했으면 하는 바람임.

